

제 7 장

과채 수급 동향과 전망

박한울*·신성철**·김명은***·김원빈****·강지원*****

1. 오이

- 1.1. 수급 동향
- 1.2. 수급 전망

2. 호박

- 2.1. 수급 동향
- 2.2. 수급 전망

3. 풋고추

- 3.1. 수급 동향
- 3.2. 수급 전망

4. 파프리카

- 4.1. 수급 동향
- 4.2. 수급 전망

5. 토마토

- 5.1. 수급 동향
- 5.2. 수급 전망

6. 딸기

- 6.1. 수급 동향
- 6.2. 수급 전망

7. 수박

- 7.1. 수급 동향
- 7.2. 수급 전망

8. 참외

- 8.1. 수급 동향
- 8.2. 수급 전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phu87@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ssc0729@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mekim@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kimwb@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kjw05@krei.re.kr

요약

1) 생산 동향

- 2024년 8대 과채류(오이, 호박, 풋고추, 파프리카, 토마토, 수박, 참외,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4만 5,896ha이었다. 토마토, 호박, 오이 재배면적은 전년도 출하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반면, 수박, 참외, 풋고추, 파프리카는 농가 고령화 및 수익성 저하, 타 품목 전환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 2024년 과채류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조시간 감소와 가을까지 지속된 고온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딸기와 풋고추 생산량은 전년 대비 각각 6.0% 감소해 생산량 감소 폭이 가장 컸고, 다음은 수박(-5.4%), 토마토(-3.1%) 순으로 나타났다.

2) 생산 전망

- 2025년 주요 과채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6% 감소한 4만 5,633ha로 전망된다. 오이, 풋고추, 토마토,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산 가격 강세 등으로 농가 재배 의향이 높게 나타나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호박, 수박, 참외, 파프리카는 작목 전환 및 노동력 부족, 재배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주요 과채류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하나, 작황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전년과 비슷한 195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
- 주요 과채류 재배면적은 2025년 이후 연평균 0.1% 감소하여 2034년 4만 5,400ha 수준으로 전망된다.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호박 재배면적은 소비자 선호 증가와 재배 농가의 규모화 등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오이, 풋고추, 수박, 참외는 농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작목 전환 등으로 재배면적 감소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 중장기적으로 주요 과채류 생산량은 재배기술 발달과 다수확·내병계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의 영향으로 단수가 늘어 연평균(2025~2034년)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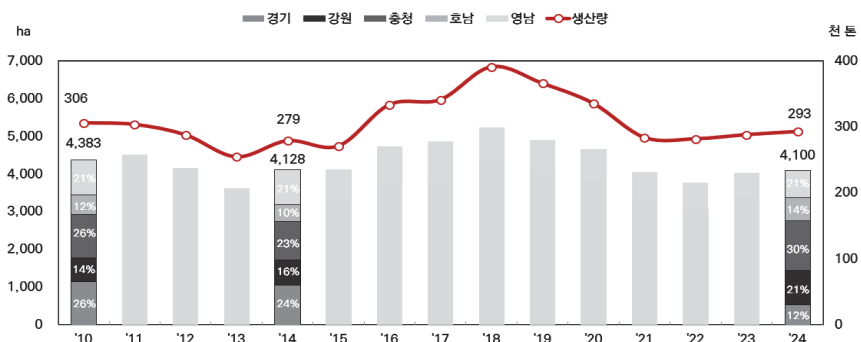
1.1. 수급 동향

1.1.1. 생산 동향

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오이 재배면적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주산지 재배면적 확대, 타 과채류에서의 작목 전환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이후 외국인 인력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재배면적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오이는 원예작물 중에서도 소득이 높아¹⁾ 최근 들어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당해 작황 변화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그림 7-1 | 오이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시설오이 소득은 10a 당 평균 10,711천 원이며, 최근 3년(2020~2022년)간 시설작물 중 오이(축성) 소득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4년 지역별 오이 재배면적 비중은 충청(30%), 강원(21%), 영남(21%), 호남(14%), 경기(12%) 순이었다. 2014년 이후 경기와 영남지역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지만, 그 외 지역은 증가하였다.
 - 경기와 영남지역은 인건비 및 유가 상승 등 생산비 부담으로 인해 작목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연평균 각각 6.5%, 2.5%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 최근 전남 고흥 지역을 중심으로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보급사업’ 등 지자체 협력사업이 시행되면서 호남지역 재배면적은 연평균 3.2% 증가하였다.
 - 강원지역(홍천 등) 재배면적은 신상품 종자 보급 확대와 판로 확대 지원 사업 등으로 연평균 3.0% 증가하고 있다.

나. 2024년 생산 동향

- 2024년 오이 재배면적은 전년(2023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강원지역 노지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1.9% 증가한 4,154ha이었다.
 - 2024년 기준, 전체 오이 재배면적 중에서 시설은 73%, 노지 2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시설면적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노지면적은 전년 대비 10.0% 증가하였다. 이는 노지재배가 대부분인 충청지역(제천 등)에서 공선출하회 조직, 농작업 대행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강원지역에서 품목 전환 등 면적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 단수는 바이러스 피해 등으로 작황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였던 전년과 비슷한 7,053kg/10a이었다.
 - 겨울 작형 주산지인 영·호남지역은 일조량 감소 등의 기상 여건 악화로 전반적인 작황이 부진하였다.
 - 여름 작형 단수는 주산지인 강원지역에서 수정 불량과 노균병 및 흰가루병 등의 병충해 발생이 증가하였다.
 - 가을 작형 단수는 주산지인 충청지역에서 고온으로 생리장해가 발생하였으며, 낙과 및 기형과 발생이 증가하였다.
- 2024년 오이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29만 3천 톤으로 추정된다.

표 7-1 | 2024년 오이 생산 동향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년		4,154	7,053	293.0
2023년		4,078	7,068	288.3
평년		4,307	7,026	302.6
증감률	전년 대비	1.9	-0.2	1.6
	평년 대비	-3.6	0.4	-3.2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이며, 평년은 2019~2023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1.1.2. 가격 및 출하 동향²⁾

- 2024년 전체 반입량은 전년(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1.6%, 1.1% 증가한 10만 7천 톤이었으며, 가격은 전년(1,976원)과 평년(1,828원) 대비 각각 5.8%, 14.4% 상승한 2,091원/kg이었다. 전체적인 반입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음에도 유통업체 행사 등으로 소비가 원활³⁾하게 이루어져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
 - 2024년 백다다기오이 가격은 2,055원/kg으로 전년(1,946원)과 평년(1,714원) 대비 각각 5.6%, 19.9% 상승하였다. 반입량은 전년 출하기 가격 상승 등으로 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1.9% 증가(9만 4천톤)하였으나, 소비가 원활하여 가격이 상승하였다.
 - 취청오이의 경우 2018년 이후부터 물량이 점차 줄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에도 주산지인 충청지역에서 생육기 고온으로 인해 낙과 및 열과 발생이 많아 반입량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여 가격은 전년(2,483원)과 평년(2,216원) 대비 각각 6.2%, 19.0% 상승(2,636원/kg)하였다.
 - 생산과 유통이 영남지역에 한정된 가시오이는 2021년 이후 반입량이 증가하였으나, 외식 수요가 늘어⁴⁾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에도 가시오이 가격(대구북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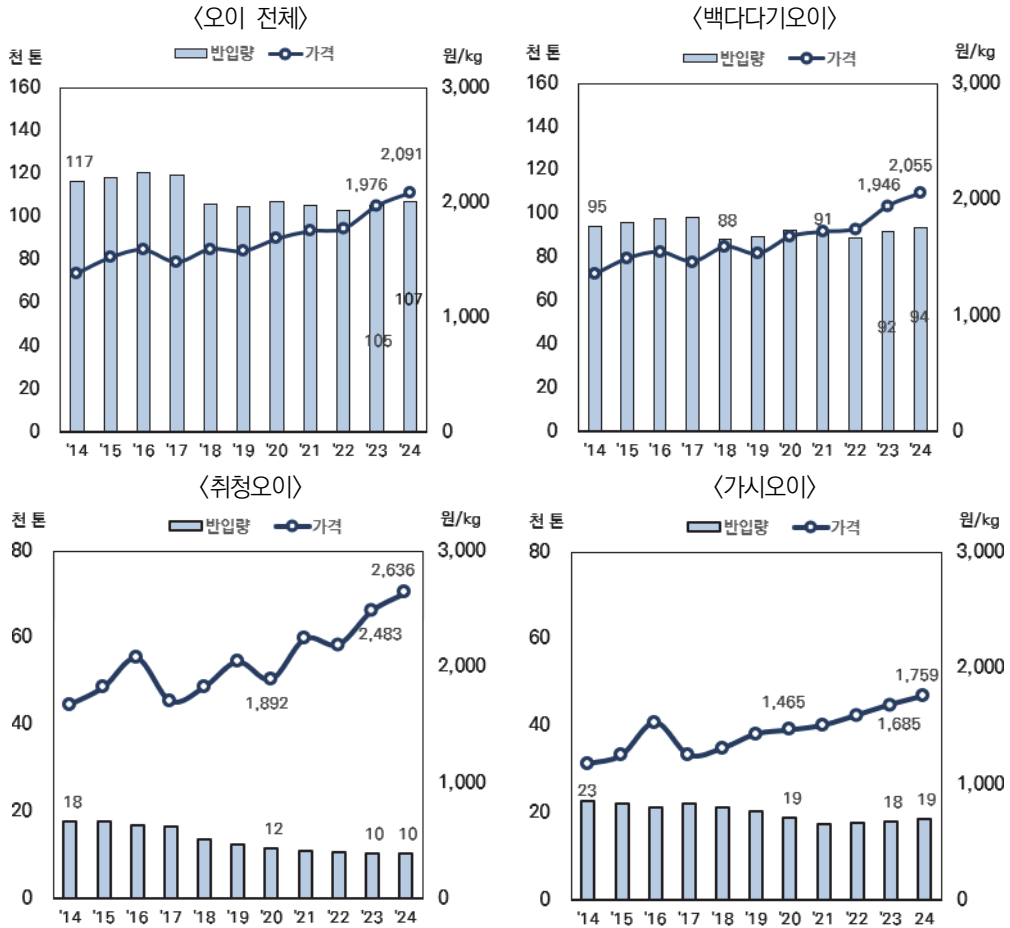
2) 서울가락도매시장을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3) 2024년 대형유통업체 오이 추정판매량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대형유통업체(대형마트, SSM) 판매결과, 농넷).

4) 외식산업 규모는 146.8조 원(2021) → 160.2조 원(2022) → 165.3조 원(2023)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외식 수요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2023년 외식업 주요 동향 및 특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

매시장은 1,759원/kg으로 전년(1,685원)과 평년(1,534원) 대비 각각 4.4%, 14.6% 상승하였다.

그림 7-21 오이 품종별 가격과 반입량 추이



주 1) 가격은 가락시장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2) 백다다기오이, 취청오이는 서울가락도매시장, 가시오이는 대구북부도매시장의 반입량과 가격 자료임.
 자료: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14~2018), aT 도매유통 정보시스템(2019~2024)

1.1.3. 수출입 동향⁵⁾

- 2024년 수출량은 178톤으로 전년(143톤) 대비 24.4% 증가하였으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수출 형태별로는 초산·조제가 7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신선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 2024년 기준 신선은 러시아(73%)로, 초산·조제는 미국(49%)으로 수출되고 있다.
- 2024년 수입량은 전년(1만 9,356톤) 대비 7.2% 증가한 2만 756톤이었다. 절임(일시 저장 처리)과 초산·조제(조제 저장 처리) 형태로 수입되고 있는데, 2024년 절임 수입량은 평년과 비슷한 1만톤 수준이며, 초산·조제는 평년(9,352톤) 대비 12.1% 증가한 1만 479톤이었다.
 - 초산·조제 수입량은 외식 업체 수요 증가와 서구화된 식습관에 따른 가공식품 수요 증가로 점차 증가하는 반면, 절임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 2024년 주요 수입국을 살펴보면, 절임은 중국(65%), 초산·조제는 베트남(85%)이다.

표 7-2 | 오이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2015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량	234	228	210	206	108	143	178
신선	64	88	128	33	20	30	45
절임	30	0	0	0	0	0	0
초산·조제	140	140	82	173	88	113	133
수입량	21,034	19,968	19,054	19,089	19,963	19,356	20,756
신선	0	0	0	0	0	0	0
절임	14,302	10,867	10,482	10,024	10,301	9,256	10,276
초산·조제	6,732	9,101	8,572	9,065	9,662	10,100	10,479

주: 2024년은 잠정치임.
 자료: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5) 오이 수출입 품목은 신선 및 냉장(HS Code: 0707000000), 일시적 보존처리한 것(HS Code: 0711400000), 식초/초산 조제(HS Code: 2001100000) 등을 포함한다.

1.2. 수급 전망

1.2.1. 2025년 전망

- 2025년 정식(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기별로 살펴보면, 2024년 10~12월 정식면적은 겨울철 출하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재배 규모가 확대되면서 전년(2023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5년 1~3월 정식면적은 전년도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경기지역 폭설로 시설 하우스가 파손되면서 전년(2024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4~6월 정식면적은 주 정식지역인 강원에서 오이로 작목을 전환하는 농가가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7~9월 정식면적은 정식 비중이 높은 충청지역에서 재배면적을 늘리려는 농가 의향 높아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7-3 | 2025년 시기별 오이 정식(의향)면적

단위: %

구분	2024년	2025년			전체
	10~12월	1~3월	4~6월	7~9월	
비중	14.4	24.9	25.7	35.0	100.0
전년 대비 증감률	1.6	-0.3	1.3	1.9	1.2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2025년 오이 재배면적은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재배 규모를 늘려 전년(2024년) 대비 1.2% 증가한 4,203ha로 전망된다.
- 2025년 오이 단수는 7,006kg/10a로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는 겨울 작형 주산지인 영·호남 지역에서 정식기 고온 피해로 생육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단수가 0.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다만, 단수는 기상 요인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 2025년 오이 생산량은 단수는 감소하지만,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 대비 0.5% 증가한 29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6)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에 따르면 호박 등에서 오이로 전환하려는 농가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표 7-4 | 2025년 오이 생산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5년		4,203	7,006	294.4
2024년		4,154	7,053	293.0
평년		4,118	7,004	288.4
증감률	전년 대비	1.2	-0.7	0.5
	평년 대비	2.0	0.1	2.1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5년 1~2월 출하 전망

- 2025년 1월 백다다기오이 출하량은 전년(2024년) 대비 0.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면적은 영·호남지역에서 전년(2024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0.7% 증가하였다.
 - 단수는 생육기 기상 악화(일조량 부족 등)로 전년 대비 1.6% 감소할 전망이다.
- 2월 출하면적은 주 출하지인 영남지역의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0.9% 증가할 전망이다.

표 7-5 | 백다다기오이 1월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경기	충청	호남	영남	전체
비중	12.1	10.2	24.4	53.3	100.0
출하면적	0.6	-4.0	1.8	1.1	0.7
단수	-1.7	-4.2	-3.8	-0.1	-1.6
출하량	-1.1	-8.0	-2.1	1.0	-0.9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2025년 1월 취청오이 출하량은 전년 대비 3.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면적은 주 출하지인 호남지역에서 인력 부족 및 타 작목 전환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다.
 - 단수는 생육기 일조 부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표 7-6 | 취청오이 1월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출하면적	단수	출하량
-0.8	-2.7	-3.4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1.2.2. 증장기 전망

- 오이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2025년 4,203ha에서 2034년 3,948ha 수준으로 완만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 오이는 소득이 높은 작물로 인력수급이 원활할 경우 면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시설원예 중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농가 고령화와 인력 부족 현상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재배면적은 감소할 전망이다.
- 오이 단수는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등) 및 양액재배 등 재배기술⁸⁾ 향상으로 생육 환경이 개선되고, 생산성(연작장해 해소, 노동력 절감, 병해충 감소 등)도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어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기술 보급사업, 원예·특작 분야 시설 지원 사업 등은 단수가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연작장해 및 병해충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 오이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 2025년 29만 4천 톤에서 2034년 28만 톤 수준까지 줄어들겠지만, 단수가 증가하여 생산량 감소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오이 1인당 연간 소비량은 5.5kg 수준까지 완만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7) 시설 오이 노동시간(1년 1기작/10a 기준)은 528시간으로, 시설 방울토마토(수경) 457시간, 시설 호박 442시간, 시설 토마토 405시간, 시설 참외 222시간, 시설 수박 112시간 등 타 시설 채소에 비해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2023 농축산물소득자료집, 농촌진흥청,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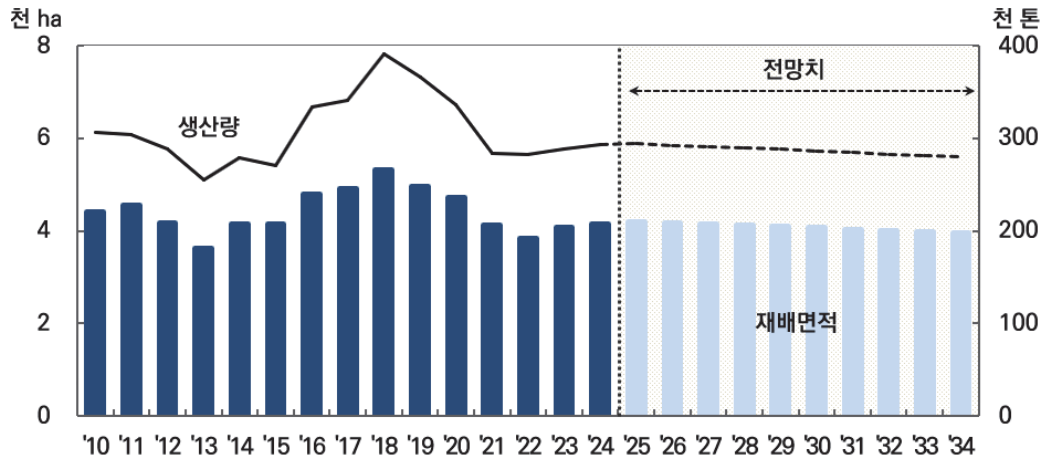
8) 농촌진흥청은 여과 액비와 제1 인산 암모늄(MAP)을 활용한 오이 관비 재배 기술과 더불어, 농가보급형 특용작물 수직 다단 양액재배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농촌진흥청 보도자료, 2024).

표 7-71 오이 중장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4년	전망		
			2025년	2029년	2034년
재배면적	ha	4,154	4,203	4,097	3,948
단수	kg/10a	7,053	7,006	7,046	7,096
국내 생산량	천 톤	293.0	294.4	288.7	280.1
1인당 소비량	kg	5.7	5.7	5.6	5.5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그림 7-31 오이 중장기 생산 전망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Chapter 2 호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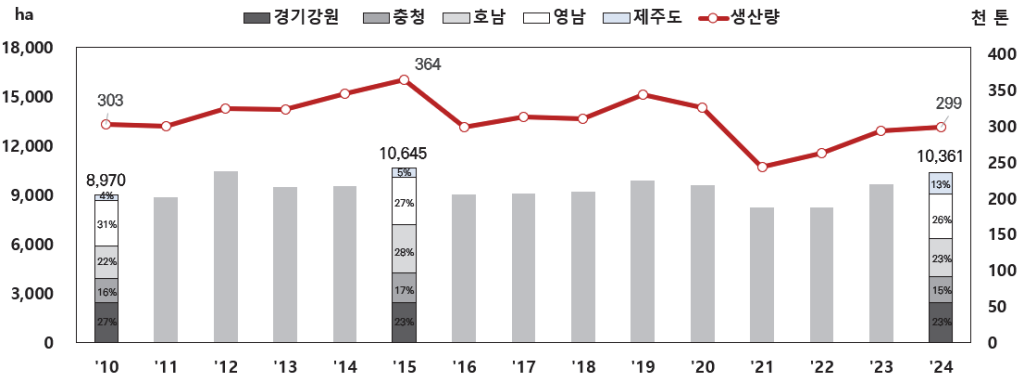
2.1. 수급 동향

2.1.1. 생산 동향

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호박 재배면적은 타 과채류 대비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적게 소요되어 2010년부터 2024년 까지 연평균 1.0% 증가하였다. 시설 재배면적은 연평균 2.3% 감소한 반면, 재배 비중이 높은 노지 재배면적은 2.4% 증가하였다.
 - 2021년에는 인력 수급 문제로 재배면적이 8,222ha까지 감소했으나, 2023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며, 재배면적 증가로 인해 생산량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림 7-4 | 호박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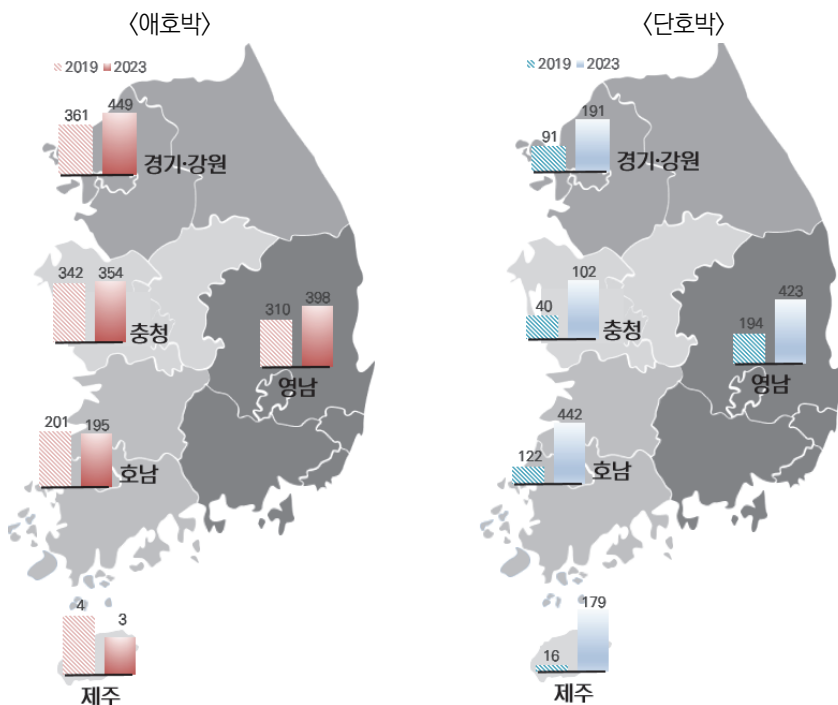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4년 기준 지역별 호박 재배면적 비중은 영남(26%), 호남(23%), 경기·강원(23%), 충청(15%), 제주(13%) 순이었다.
 - 영·호남지역은 작목이 전환(오이 등)되면서 연평균(2015~2024년) 각각 0.7%, 2.5% 감소하였고, 충청지역은 가을 작형 애호박 주산지이나, 연작장해로 연평균 1.6% 감소하였다.
 - 경기·강원지역은 애호박, 주키니호박 등 여름 작형 주산지이며, 최근 강원 고성 등에서 ‘미니단호박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을 통해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 제주지역은 단호박 주산지이며, 연평균 9.5% 증가하였다. 단호박은 월동 채소 후 작물로 생육기간이 짧아 재배가 용이해 재배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품종별 주산지의 변화를 살펴보면(2019~2023년), 애호박의 경우 호남지역에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고, 단호박은 전체 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주로 제주와 호남지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7-5 | 호박 품종별·지역별 재배면적 변화(2019~2023년)

단위: ha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http://uni.agrix.go.kr/docs7/biOlap/dashBoard.do>)

나. 2024년 생산 동향

- 2024년 호박 재배면적은 전년(2023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한 10,360ha 이었다.
 - 노지 재배면적(전체 재배면적의 77% 비중을 차지)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8,013ha 이었다. 이는 전남 해남과 무안 등 호남지역에서 ‘특화작목 육성사업(미니 단호박, 밤호박)’으로 면적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 시설 재배면적은 애호박 주산지인 청주 등에서 ‘밭작물 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선별 기반 시설을 확대하면서 전년 대비 9.7% 증가한 2,347ha이었다.
- 단수는 기상 여건 악화(일조량 감소 등)로 전반적인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5.2% 감소한 2,886kg/10a이었다.
- 2024년 호박 생산량은 단수가 감소하였지만,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8% 증가한 29만 9천 톤으로 추정된다.

표 7-8 | 2024년 호박 생산 동향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년	10,360	2,886	299.0	
2023년	9,648	3,045	293.8	
평년	9,154	3,212	294.1	
증감률	전년 대비	7.4	-5.2	1.8
	평년 대비	13.2	-10.1	1.7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이며, 평년은 2019~2023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2.1.2. 가격 및 출하 동향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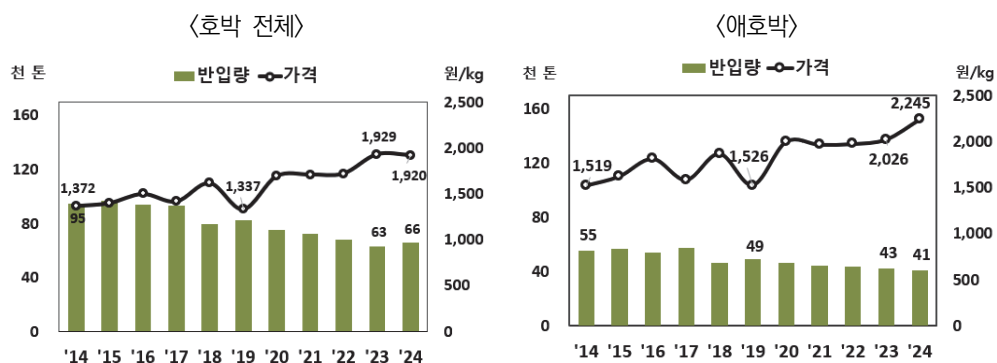
- 품종별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애호박 가격은 2018년부터 작황 부진 등으로 반입량이 줄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쥬키니호박은 생산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반입량 증감에 따라

9) 서울가락도매시장을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가격 변동 폭이 큰 편이다. 단호박 가격은 2014년 이후 반입량 감소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3년부터 반입량이 증가하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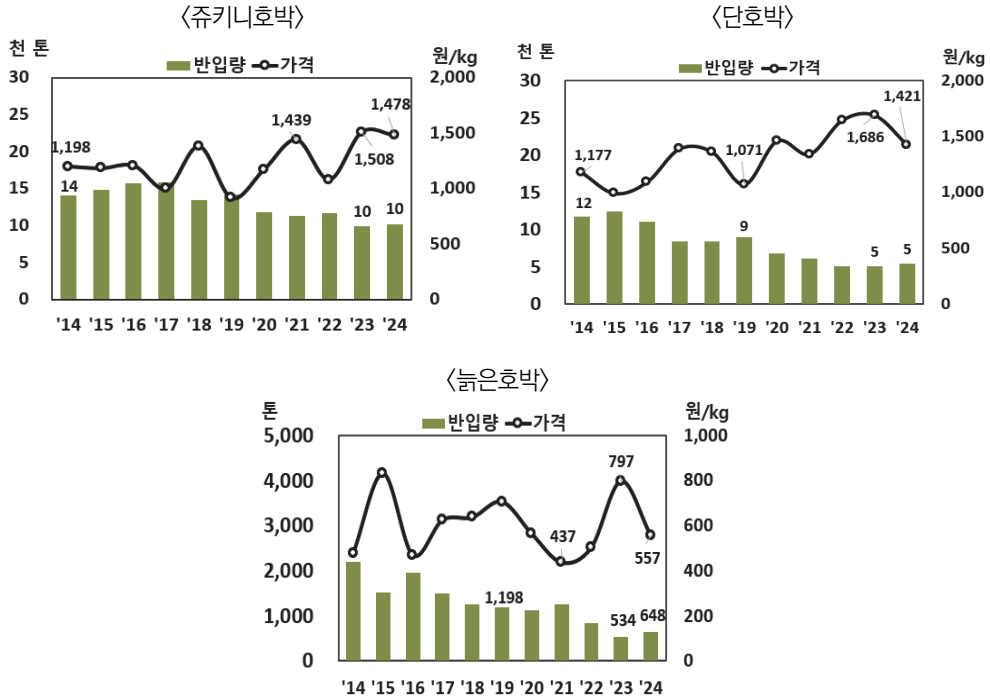
- 2024년 반입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6만 6천 톤이었으며, 가격은 전년(1,929원)과 비슷한 1,920원/kg이었다.
 - 2024년 애호박 반입량은 전년 대비 3.2% 감소한 4만 1천 톤이었으며, 가격은 전년 (2,026원) 대비 10.8% 상승한 2,245원/kg이었다. 이는 겨울 작형인 영·호남지역에서 생리장해 등으로 기형과 발생률이 높았으며, 가을 작형인 충청지역에서 고온 피해로 착과량이 줄어 전반적으로 작황이 부진하였기 때문이다.
 - 2024년 추키니호박 반입량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1만 톤이었으며, 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1,508원) 대비 2.0% 하락한 1,478원/kg이었다.
 - 2024년 단호박 반입량은 호남지역에서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6.5% 증가한 5천 톤이었으며, 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1,686원) 대비 15.7% 하락한 1,421원/kg이었다.
 - 2024년 늙은호박 반입량은 영남지역에서 유희경작지 활용 등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21.4% 증가한 648톤이었으며, 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797원) 대비 30.2% 하락한 557원/kg이었다.

그림 7-6 | 호박 품종별 가격과 반입량 추이 (1)



주: 가격은 가락시장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그림 7-7 | 호박 품종별 가격과 반입량 추이 (2)



주: 가격은 가락시장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2.1.3. 수출입 동향

- 단호박 수출량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10.3% 증가하였으나, 2021년부터 국내 생산량 감소와 수출국 수요 위축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주요 수출 시기는 국내 생산량이 많은 7~8월이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82%), 홍콩(13%) 등이다. 2024년 단호박 수출량은 일본 수출이 늘어 전년(276톤) 대비 증가한 533톤이었다.
- 단호박 수입량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5.1% 증가하였으나, 2022년 이후 주요 수입 대상국(뉴질랜드, 통가 등) 작황 부진으로 감소하였다. 주요 수입 시기는 국내 생산량이 적은 1~5월이며, 주요 수입국은 뉴질랜드(98%)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4년 단호박 수입량은 뉴질랜드 작황이 회복되어 전년(1만 2,316톤) 대비 증가한 2만 2,313톤이었다.

표 7-9 | 단호박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2012년	2015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량	1,222	2,192	2,109	2,673	1,080	579	276	533
일본	1,134	1,857	1,748	2,123	636	293	125	438
홍콩	76	195	250	284	235	159	82	70
기타	12	140	111	266	209	127	69	25
수입량	24,921	23,184	24,272	24,614	26,194	19,808	12,316	22,313
뉴질랜드	22,526	21,502	20,532	21,839	22,955	18,316	11,421	21,769
통가	239	1,678	3,275	1,015	1,822	1,037	412	0
기타	2,156	4	465	1,760	1,417	455	483	544

주 1) 2024년은 잠정치임.

2) HS Code는 0709930000임.

자료: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2. 수급 전망

2.2.1. 2025년 전망

- 2025년 호박 정식(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3.5%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기별로 살펴보면, 2024년 9~12월 정식면적은 영남지역에서 전년도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재배면적을 늘리려는 의향이 높아 전년(2023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5년 1~3월 정식면적은 충청지역에서 고령화로 휴경 및 임대하려는 의향이 높아 전년(2024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4~6월 정식면적은 주 정식지인 강원지역에서 경작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농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호박에서 타 작목(방울토마토, 오이 등)으로 전환하려는 의향이 늘어 전년 대비 9.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7~8월 정식면적은 충청지역에서 일손 부족으로 재배면적을 줄이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어 전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7-10 | 2025년 시기별 호박 정식(의향)면적

단위: %

구분	2024년	2025년			전체
	9~12월	1~3월	4~6월	7~8월	
비중	25.0	22.8	23.0	29.2	100.0
전년 대비 증감률	0.4	-2.8	-9.4	-2.8	-3.5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2025년 호박 재배면적은 타 작목 전환과 재배 규모 축소로 전년(2024년) 대비 3.5% 감소한 9,997ha로 전망된다.
- 2025년 호박 단수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2,961kg/10a로 전망된다.
 - 영남지역의 정식기 기상 여건(일조시간 감소, 고온 등)이 좋지 않아 초기 생육은 다소 부진하였으나, 작황이 회복되면서 병·바이러스 피해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보다 양호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5년 단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상 요인 등 불확실성으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 2025년 호박 생산량은 단수가 증가하지만,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11 | 2025년 호박 생산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5년	9,997	2,961	296.0	
2024년	10,360	2,886	299.0	
평년	9,154	3,117	285.3	
증감률	전년 대비	-3.5	2.6	-1.0
	평년 대비	9.2	-5.0	3.8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5년 1~2월 출하 전망

- 2025년 1월 애호박 출하량은 출하면적 늘어 전년(2024년) 대비 0.8% 증가할 전망이다.
 - 출하면적은 영남지역(진주, 의령 등)에서 가격 상승 기대로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0.6% 증가하였다.
 - 단수는 충청과 호남지역에서 수세 약화와 바이러스 피해 발생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영남지역은 기상 여건 호조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 2월 출하면적은 영남지역의 출하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0.8% 증가할 전망이다.

표 7-12 | 애호박 1월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충청	호남	영남	전체
비중	3.4	11.6	84.8	100.0
출하면적	-0.3	-3.1	1.1	0.6
단수	-1.9	-0.5	0.5	0.3
출하량	-2.2	-3.6	1.6	0.8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2.2.2. 중장기 전망

- 호박 재배면적은 2025년 9,997ha에서 2034년 10,178ha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호박은 시설원에 작물 가운데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¹⁰⁾되기 때문에 고령 농가에서 작목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전체 면적은 중장기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2010년부터 연평균 2.4%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노지 재배면적 증가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10) 시설 호박 노동시간(1기작/10a 기준)은 427시간으로, 시설 딸기(수경) 699시간, 시설 토마토(수경) 687시간, 시설 가지 645시간, 시설 파프리카 589시간 등 타 시설 채소에 비해 적은 편이며, 시설 호박 소득률은 53.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2023 농축산물소득자료집, 농촌진흥청,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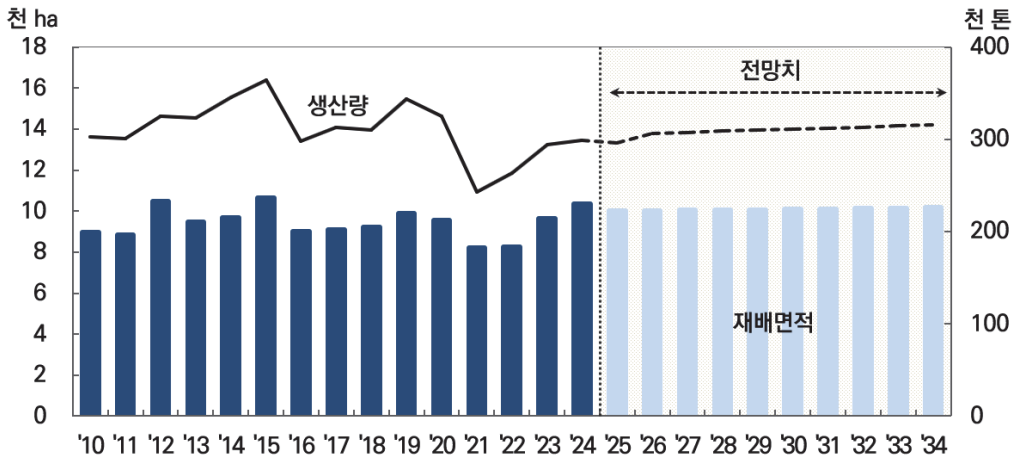
- 호박 단수는 병충해에 강한 새로운 품종 개발¹¹⁾과 신기술 보급(온도저감기술 등)을 통해 생육 환경이 개선되어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호박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늘어 2025년 29만 6천 톤에서 2034년 31만 5천 톤 수준 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호박 1인당 연간 소비량은 공급량 확대 영향으로 2034년 6.6kg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표 7-13 | 호박 중장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4년	전망		
			2025년	2029년	2034년
재배면적	ha	10,360	9,997	10,064	10,178
단수	kg/10a	2,886	2,961	3,078	3,103
국내 생산량	천 톤	299.0	296.0	309.7	315.8
1인당 소비량	kg	6.2	6.1	6.5	6.6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그림 7-8 | 호박 중장기 생산 전망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KASMO)

11) 디지털육종 기술은 특정 형질(표현형)을 갖는 개체의 유전형질을 이용하여 선발하는 기술로 6~8년 걸리던 호박의 신품종 개발을 3년 이하로 단축한 첨단 육종 기술이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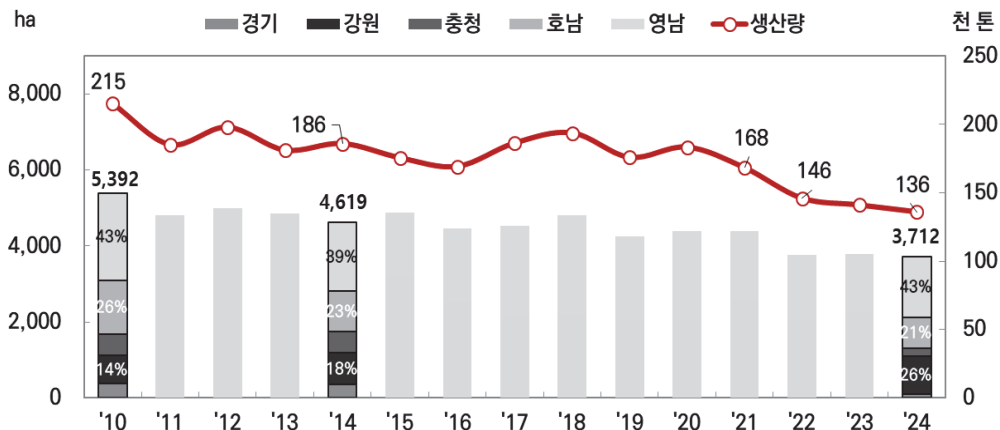
3.1. 수급 동향

3.1.1. 생산 동향

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풋고추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타 작목 전환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2010년 5,392ha에서 2024년 3,712ha까지 줄어 들었다.
- 풋고추 생산량은 재배기술 향상 및 다수확·내병성 신품종 개발 등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감소로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그림 7-9 | 풋고추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은 영남지역이 전체의 40% 이상을 유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강원지역은 면적 비중이 2010년 14%에서 2024년 26%까지 늘어나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영남지역과 강원지역은 겨울 작형과 여름 작형 주산지로서 이 시기에 출하되는 풋고추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농가의 재배 의향이 높은 편이며, 강원지역의 경우 시설 지원사업 등으로 풋고추 재배면적이 증가하여 전체 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2024년 생산 동향

- 2024년 풋고추 재배면적은 전년(2023년) 대비 2.1% 감소한 3,717ha이었다.
 - 이는 봄·가을철 주 출하지인 호남지역에서 재배 농가의 고령화와 전년산 작황 부진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 등으로 재배 규모를 축소하거나 타 작목 등으로 전환되면서 재배면적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단수는 기상 여건 악화(일조시간 부족 등)로 전년 대비 2.0% 감소한 3,644kg/10a이었다.
- 2024년 풋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4.0% 감소한 13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표 7-14 | 2024년 풋고추 생산 동향

단위: ha, kg/10a,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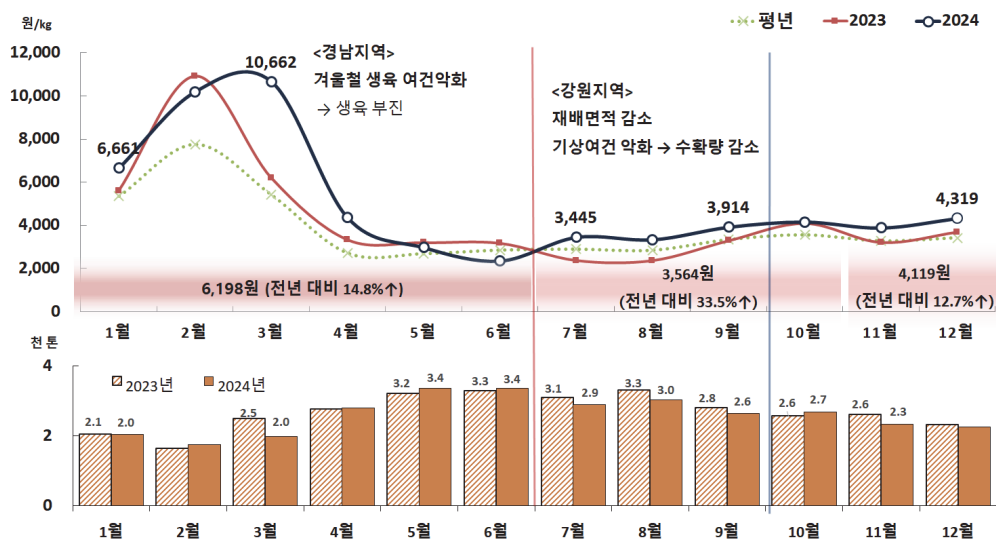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년		3,717	3,644	135.5
2023년		3,796	3,717	141.1
평년		4,146	3,942	163.1
증감률	전년 대비	-2.1	-2.0	-4.0
	평년 대비	-10.4	-7.5	-17.1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이며, 평년은 2019~2023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3.1.2. 가격 및 출하 동향¹²⁾

- 2024년 풋고추 가격은 전년(2023년, 3,930원) 및 평년(3,645원) 대비 각각 16.8%, 25.9% 높은 4,590원/kg이었으며, 반입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6%, 8.2% 감소한 3만 1천 톤이었다.
 - 1~6월 풋고추 가격은 주산지인 경남지역(진주, 밀양)에서 생육 여건 악화로 병해 및 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여 전년(5,400원) 및 평년(4,456원) 대비 각각 14.8%, 39.1% 상승한 6,198원/kg이었다.
 - 7~9월 가격은 강원지역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 여건 악화로 바이러스 및 병해가 확산되는 등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2,669원) 및 평년(3,019원) 대비 각각 33.5%, 18.0% 상승한 3,564원/kg이었다.

그림 7-10 | 풋고추 월별 가격과 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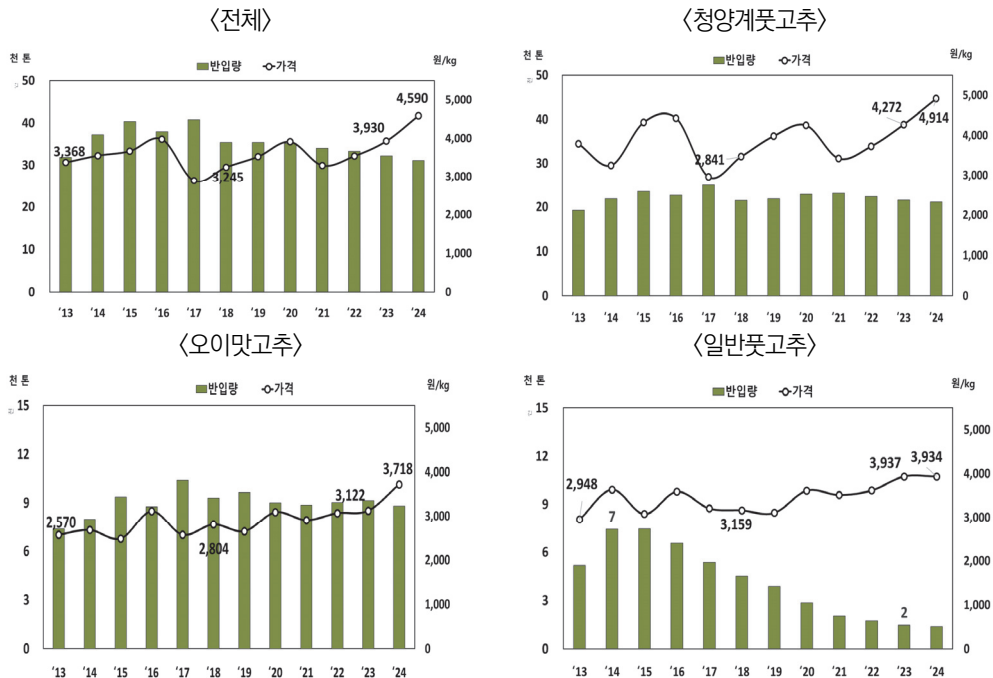
주 1) 가격은 가락시장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2) 풋고추는 청양계풋고추, 오이맛고추, 일반풋고추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12) 서울가락도매시장을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 품종별 반입량 증감에 따라 가격은 등락하고 있으나, 품종 특성에 따라 가격 변동성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024년의 경우 모든 품종의 풋고추 가격은 작황 부진으로 반입량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상승하였다.
 - 청양계풋고추 반입량은 2020년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반입량이 줄어 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 오이맛고추(오이맛고추, 롱그린, 아삭이)는 2013년 이후 반입량과 가격이 최근까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입량이 증가한 이유는 수요 증가로 가격이 높게 유지되자 많은 농가에서 일반풋고추에서 오이맛고추로 품종을 전환하며 재배면적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 일반풋고추(녹광, 청초 등)는 소비 부진으로 반입량 감소에도 가격이 유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가에서 오이맛고추 등 타 품종으로 전환함에 따라 반입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최근 5개년에는 평균 2천 톤 수준이었다.

| 그림 7-11 | 풋고추 품종별 가격과 반입량 추이



주 1) 가격은 가락시장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2) 오이맛고추는 오이맛고추, 아삭이, 롱그린 합계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3.2. 수급 전망

3.2.1. 2025년 전망

- 2025년 풋고추 정식(의향)면적은 최근 풋고추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자 농가의 재배의향이 늘어 전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시기별로는 대부분의 시기에서 정식 의향이 증가하였으나, 여름 작형 정식이 이루어지는 5~6월 재배의향은 전년(2024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5~6월 정식 주산지인 강원지역에서 전년산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가 장마 및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로 재배의 어려움이 커져 2025년산 재배 면적을 줄이려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7-15 | 2025년 시기별 풋고추 정식(의향)면적

단위: %

구분	2024년	2025년			전체
	9~12월	1~4월	5~6월	7~8월	
비중	42.5	12.4	22.8	22.3	100.0
전년 대비 증감률	3.5	2.4	-0.4	3.3	2.4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2025년 풋고추 전체 재배면적은 전년(2024년) 대비 2.4% 증가한 3,806ha로 전망된다. 전년산 출하기 가격 상승으로 겨울 작형 주산지인 영남과 호남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풋고추 단수는 전년 대비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식기 고온으로 지연되었던 생육이 회복되며 경남지역 겨울 작형 풋고추 작황이 전년 대비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5년 풋고추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5.9% 증가한 14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표 7-16 | 2025년 풋고추 생산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5년		3,806	3,787	144.1
2024년		3,717	3,661	136.1
평년		3,980	3,815	151.8
증감률	전년 대비	2.4	3.4	5.9
	평년 대비	-4.4	-0.7	-5.1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5년 1~2월 출하 전망

- 2025년 1월 청양계풋고추 출하량은 출하 면적 증가로 전년(2024년) 대비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면적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년산 청양계풋고추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영·호남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였다.
 - 단수는 생육 초기인 가을철 지속된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했으나 이후 생육이 회복되며 작황이 좋지 못했던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2월 출하면적은 재배면적 증가로 전년 대비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17 | 청양계풋고추 1월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비중	0.8	1.4	21.9	75.9	100.0
출하면적	-0.9	1.3	2.8	2.4	2.4
단수	0.8	1.2	-1.9	0.8	0.2
출하량	-0.1	2.5	0.9	3.2	2.6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2025년 1월 오이맛고추 출하량은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면적은 전년산 가격 강세로 영남지역의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2.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단수는 정식 후 지속된 고온으로 부진했던 초기 생육이 최근 회복되며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2월 출하면적은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18 | 오이맛고추 1월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경가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비중	1.2	6.2	5.1	87.5	100.0
출하면적	-1.9	2.1	2.5	2.9	2.6
단수	0.4	0.3	-2.1	0.6	0.4
출하량	-1.5	2.4	0.4	3.5	3.1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3.2.2.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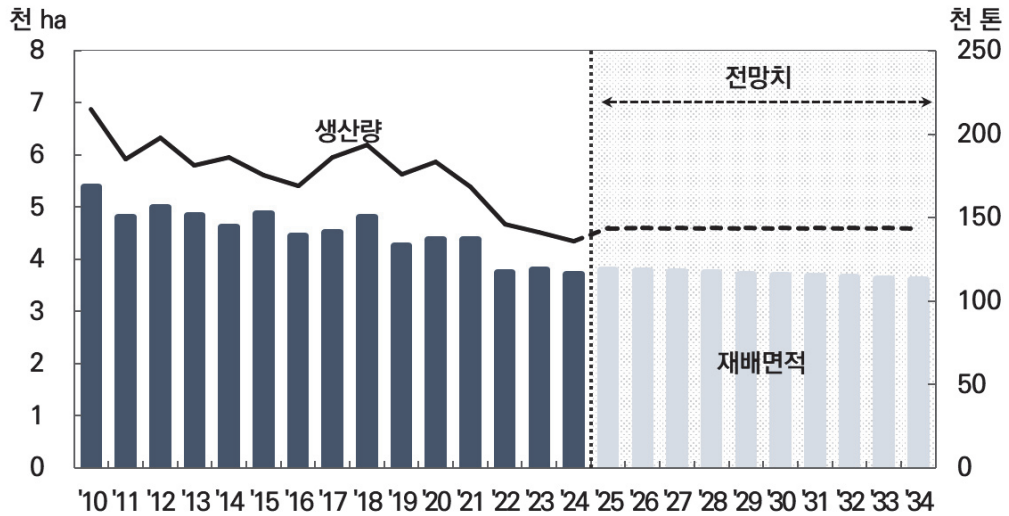
- 풋고추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등으로 감소세가 지속되어 2034년 3,606ha로 전망된다.
 - 전체 재배면적은 감소하나, 겨울 작형과 여름 작형의 주산지인 경남과 강원지역의 재배면적 비중이 증가하며 주산지 집중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 청양계풋고추와 오이맛고추의 재배면적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일반풋고추의 재배면적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풋고추 생산량은 2034년 14만 3천 톤까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단수 증가로 면적 감소 폭 대비 생산량 감소 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풋고추 단수는 재배기술의 향상과 다수확·내병계 품종의 개발 및 보급 등으로 2024년 3,661kg/10a에서 2034년 3,967kg/10a으로 전망된다.
- 풋고추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34년까지 현재 수준(2.8kg)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7-19 | 풋고추 중장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4년	전망		
			2025년	2029년	2034년
재배면적	ha	3,717	3,806	3,727	3,606
단수	kg/10a	3,661	3,787	3,867	3,967
국내 생산량	천 톤	136.1	144.1	144.1	143.1
1인당 소비량	kg	2.6	2.8	2.8	2.8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그림 7-12 | 풋고추 중장기 생산량 전망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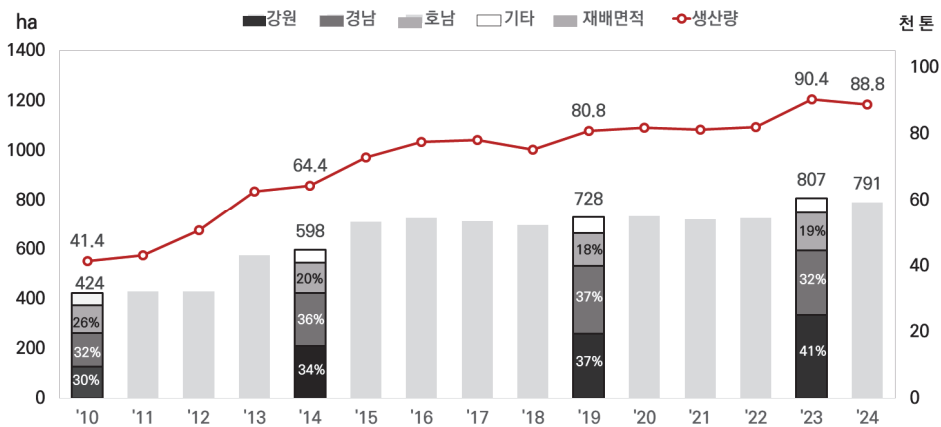
4.1. 수급 동향

4.1.1. 생산 동향

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시설 지원사업 확대와 건강 중심 소비 패턴 확산 등으로 최근 10년(2014~2023년)간 연평균 3.4%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파프리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동기간 연평균 3.8%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그림 7-13 | 파프리카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주 1) 2024년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주 2)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 광주광역시는 호남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도 등은 기타로 분류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관측센터

-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90%가량이 강원과 경남, 호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 강원과 경남지역의 파프리카 재배면적 규모는 서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3년 강원지역에서 재배면적이 전년(2022년) 대비 27.5% 증가하며 지역별 파프리카 재배면적 비중은 강원(41%), 경남(32%), 호남(19%) 등으로 나타났다.
 - 강원지역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스마트팜 도입 지원사업¹³⁾’,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사업’, ‘스마트팜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사업’ 등 농가 지원 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늘어나고 있다.

나. 2024년 생산 동향

- 2024년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고소득 작목(토마토)¹⁴⁾으로의 전환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전년(2023년) 대비 2.0% 감소한 791ha로 추정된다.
 - 최근 5년(2019~2023년)간 파프리카 재배면적이 연평균 2.1%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2024년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평년 대비 8.5% 증가한 수준이다.
- 2024년 파프리카 단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11,230kg/10a로 추정된다. 이는 병해충의 영향에도 안정적인 재배기술과 시설 환경 관리로 생산성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 2024년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 대비 1.7% 감소한 8만 9천 톤으로 추정된다.

표 7-20 | 2024년 파프리카 생산 동향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년	791	11,230	88.8	
2023년	807	11,208	90.4	
평년	729	11,219	81.7	
증감률	전년 대비	-2.0	0.2	-1.7
	평년 대비	8.5	0.1	8.8

주: 2024년 재배면적,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이며, 평년은 2019~2023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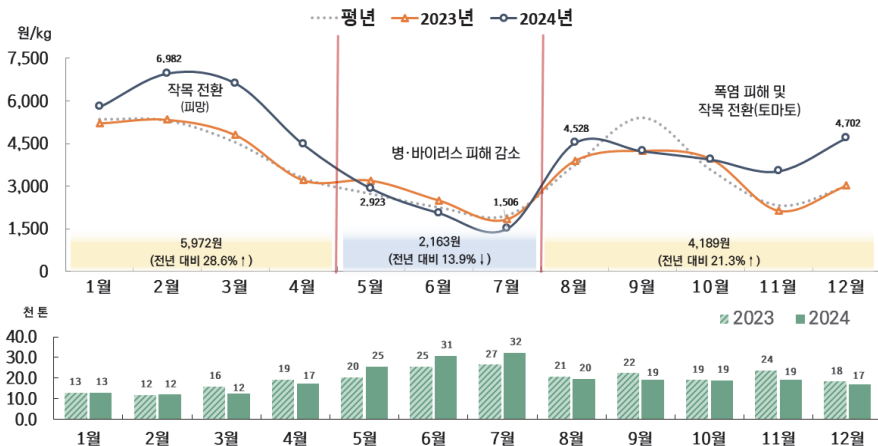
13) 강원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2022~2023년간 평균군에 200억원을 투자하여 5ha 가량의 스마트팜을 조성하였다(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2022).

14) 2023년 기준 품목별 소득률은 파프리카 26.1%, 토마토 50.4%, 고추 5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 2024).

4.1.2. 가격 및 출하 동향

-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파프리카(빨강, 노랑, 오렌지)의 64%가 서울가락도매시장으로 반입되었고, 다음은 대구북부(5%), 부산엄궁(5%) 순이었다.
- 2024년 파프리카 반입량(2만 4천 톤)은 전년(2023년) 대비 0.4% 증가하였으나, 가격은 전년(3,600원) 대비 11.3% 상승한 3,786원/kg이었다. 5~7월 반입량이 크게 늘어 연간 반입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1~4월과 8~12월에는 반입량 감소로 가격이 전년 및 평년 대비 상승했기 때문이다¹⁵⁾.
 - 1~4월은 반입량은 작목 전환으로 재배면적이 줄어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가격은 전년(4,642원) 대비 28.6% 상승한 5,972원/kg이었다.
 - 5~7월은 병·바이러스 피해가 감소함에 따라 반입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가격은 전년(2,511원) 대비 13.9% 하락한 2,163원/kg이었다.
 - 일반적으로 11~12월은 겨울 작형 출하 시기로 반입량이 증가하며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8월부터 지속된 폭염 피해와 작목 전환 등으로 12월까지 반입량이 감소하였다. 이에 8~12월 가격은 전년(3,455원) 대비 21.3% 상승한 4,189원/kg이었다.

| 그림 7-14 | 파프리카 월별 가격과 반입량 추이



주 1) 가격은 가락시장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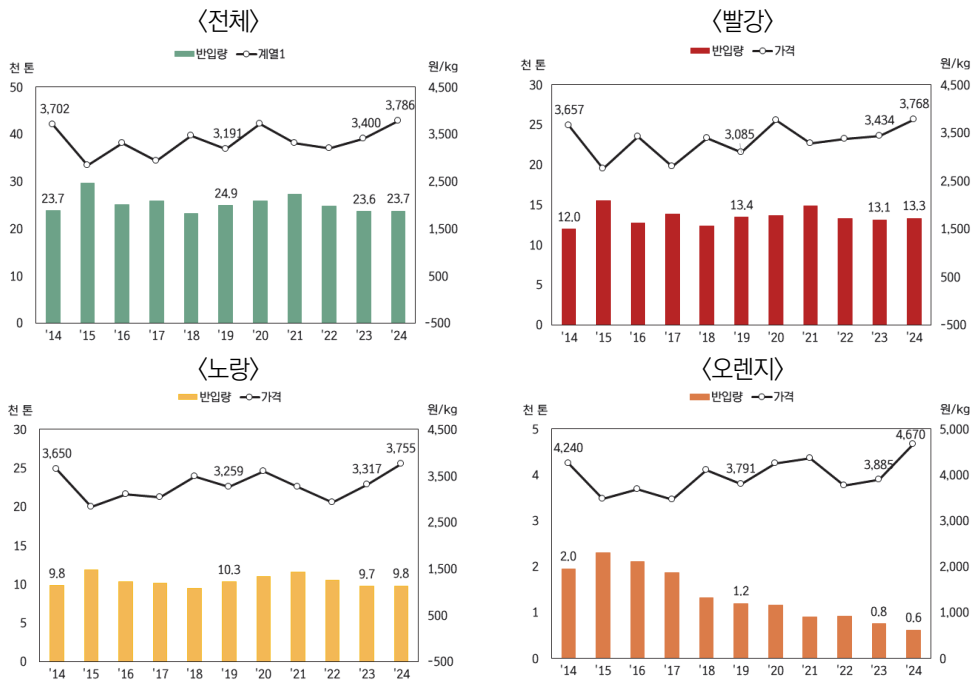
2) 평년은 2019~2023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15) 서울가락도매시장을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 2024년 파프리카 품종별 반입량 비중은 빨강 파프리카 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랑 파프리카(41%), 오렌지 파프리카(3%) 순이다.
- 파프리카 가격은 반입량 증감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최근 3년(2022~2024년)간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다.
 - 빨강 파프리카와 노랑 파프리카의 2024년 반입량은 전년 대비 각각 1.4%, 0.5% 증가하였으나, 가격은 각각 9.7%, 13.2% 상승하였다. 이는 겨울 작형 출하량 감소, 1인당 소비량 증가, 충성고객 확대¹⁶⁾등의 요인이 가격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 오렌지 파프리카의 2024년 반입량은 전년 대비 18.8% 감소하였으며, 가격은 전년 (3,885원) 대비 20.2% 상승한 4,670원/kg이었다.

그림 7-15 | 파프리카 품종별 가격과 반입량 추이



주: 가격은 가락시장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16) 파프리카 1인당 연간 소비량은 2010~2023년간 연평균 5% 증가하였으며, 소비 동향은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중 '충성고객'의 비율이 높은 성숙기 단계로 진입하였다(농촌진흥청, 「2024 농식품 소비트렌드 분석」, 2024).

4.1.3. 수출입 동향

- 파프리카는 일본으로 전량 수출되고 있다. 이는 지리적 특성으로 운송비가 낮아 국산 파프리카가 일본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다.
- 2024년 파프리카 수출량은 1만 5천 톤으로 전년(2023년) 대비 32.0% 감소하였으나, 수입 단가는 전년(3.0달러) 대비 10.0% 상승한 3.3달러/kg이다.
- 파프리카 수출량 감소는 엔저 현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일본 내 자체 생산량 증가 및 소비자의 자국산 선호도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었다.
 - 특히, 일본은 최근 파프리카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¹⁷⁾하였으나 파프리카 소비량이 감소¹⁸⁾하고 있어 공급 과잉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일본 소비자의 자국산 선호도가 높아¹⁹⁾ 한국산 파프리카의 일본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 일본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고려할 때, 수출 구조 다변화를 통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필요하며 정부는 필리핀, 홍콩 등으로의 수출 확대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7-21 | 신선 파프리카 수출 동향

단위: 톤, 천 달러, 달러/kg

구분	2015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량	29,376	35,325	30,274	27,448	26,789	21,700	14,763
수출액	85,213	91,515	86,437	82,116	73,076	64,141	49,330
수출단가	2.9	2.6	2.9	3.0	2.7	3.0	3.3

주 1) 평년은 2019~2023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이며, 2024년은 잠정치임.

2) HS Code는 070960100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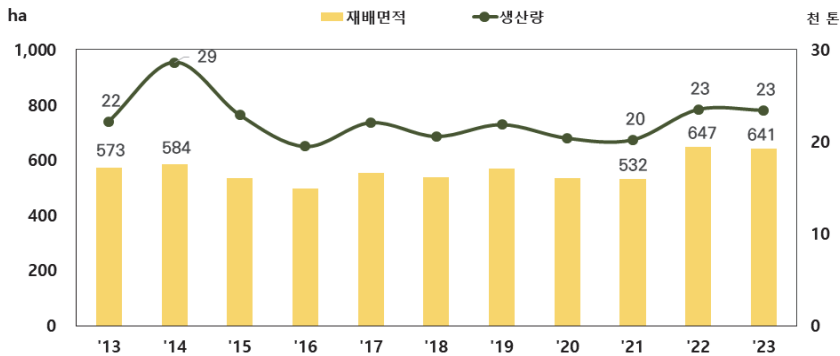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17) 일본 농림수산성의 2024년 6월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81ha로 10년 전보다 10% 증가하였으며, 수확량은 7,380톤으로 80% 증가하였다(일본 농림수산성, 2024).
- 18) 일본의 1인당 파프리카 소비량은 2019년 389g에서 2023년 259g으로 연평균 9.7% 감소하였다(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일본 파프리카 시장 동향 및 대일수출 확대 방안 전략 조사』, 2024).
- 19) 파프리카 소비자 중 국내산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산품 원산지가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미야기현 농업·원에 종합 연구소, 『パブリカ消費者購買行動調査報告書』(파프리카 소비자 구매 행태 조사 보고서), 2021).

※ 피망 생산 및 가격 동향

- 피망 재배면적은 최근 5년(2019~2023년)간 연평균 3.0%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전년(2022년, 647ha) 대비 0.9% 감소한 641ha로 나타났다.
- 피망 생산량은 2016년 이후 연평균 약 2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생산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2만 3천 톤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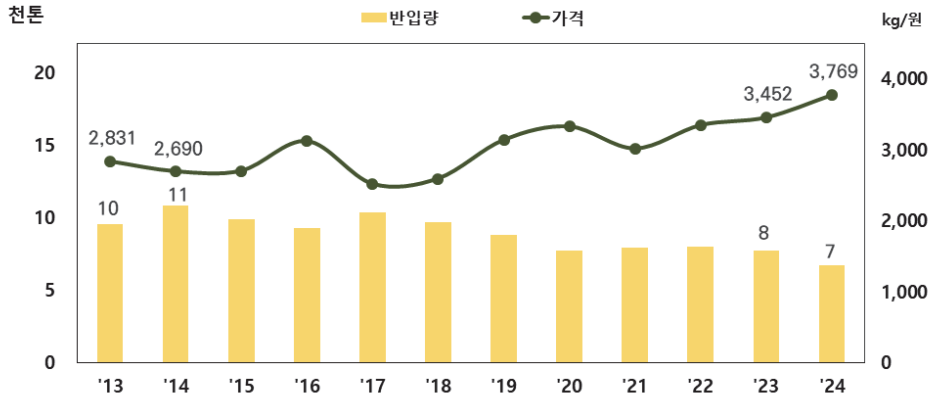
그림 7-16 | 피망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각 년도)

- 2024년 피망 반입량은 전년(2023년) 대비 13.1% 감소한 7천 톤이며, 가격은 전년(3,452원) 대비 9.2% 상승한 3,769kg/원이었다.

그림 7-17 | 피망 반입량과 가격 추이



주: 가격은 가락시장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4.2. 수급 전망

4.2.1. 2025년 전망

- 2025년 파프리카 정식(의향) 면적은 전년 대비 1.5%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4년 겨울 작형(6~10월) 정식면적은 영남지역의 작목 전환(오이, 토마토)과 호남지역 병해충 피해로 인해 전년(2023년) 대비 2.3%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5년 여름 작형(1~5월) 정식면적은 강원지역의 노동력 부족으로 전년(2024년)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22 | 2025년 파프리카 시기별 정식(의향)면적

단위: %

구분	2024년	2025년	전체
	겨울 작형(6~10월)	여름 작형(1~5월)	
비중	39.5	60.5	100.0
전년 대비 증감률	-2.3	-1.0	-1.5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2025년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작목 전환(오이, 피망, 토마토 등)으로 전년(2024년) 대비 1.5% 감소한 779ha로 전망된다.
- 2025년 파프리카 단수는 전년과 비슷한 11,208kg/10a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단, 기상 요인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변동 가능성은 있다.
- 2025년 파프리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1.7% 감소한 8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표 7-23 | 2025년 파프리카 생산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5년	779	11,208	87.3	
2024년	791	11,230	88.8	
평년	750	11,240	84.2	
증감률	전년 대비	-1.5	-0.2	-1.7
	평년 대비	3.9	-0.3	3.7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2025년 1~2월 출하 전망

- 2025년 1월 파프리카 출하량은 전년(2024년) 대비 0.7% 증가한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면적은 주산지인 영남지역의 작목 전환(피망, 토마토)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단수는 영·호남지역 모두 전년 대비 기상 여건이 양호하여 병해충 발생이 적고, 지연되었던 생육도 점차 호전되어 2.3% 증가한 것으로 전망된다.
- 2월 출하면적은 재배면적이 줄어들어 전년 대비 2.0% 감소할 전망이다.

표 7-24 | 빨강 파프리카 1월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호남	영남	전체
비중	17.4	82.6	100.0
출하면적	-0.1	-1.9	-1.5
단수	2.9	2.3	2.3
출하량	2.8	0.3	0.7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4.2.2. 증장기 전망

-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2025년 779ha에서 2034년 802ha로 증가할 전망이다.
 - 소규모 재배 농가의 작목 전환이 지속되고 있으나, 농가의 규모화로 전체 파프리카 재배면적은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파프리카 단수는 2025년 평년 수준(11,208kg/10a)을 나타내며, 이후 신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향상으로 생산성이 개선되어 2034년에는 11,71kg/10a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현재 스마트팜 기반의 환경 제어 기술과 병해충 저항성 신품종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파프리카 재배 효율성과 품질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파프리카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2025년 8만 7천 톤에서 2034년 9만 톤까지 증

가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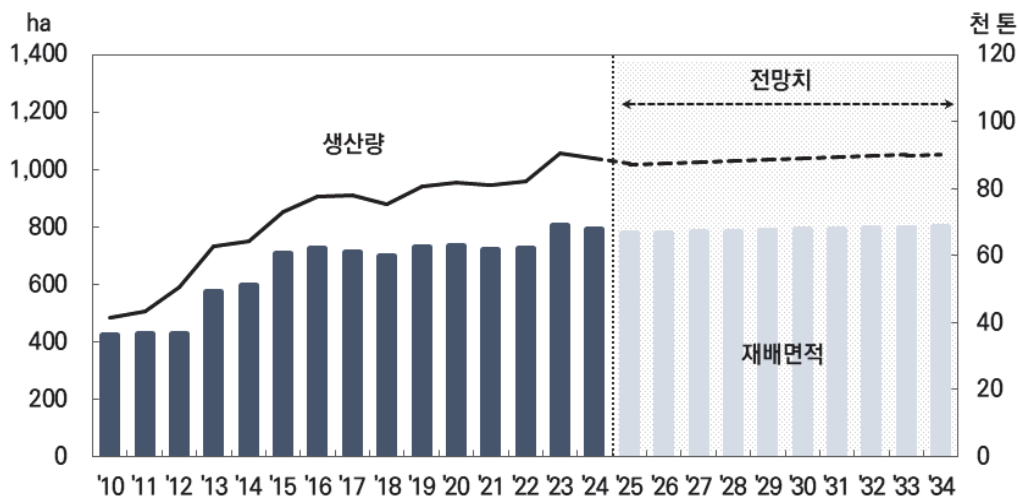
- 파프리카 수출량은 국내 재배면적 증가와 수출국 다변화로 인해 2025년 1만 6천 톤에서 2034년 2만 톤까지 증가할 전망이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중장기적으로 1.4kg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25 파프리카 중장기 수급 전망

구분		2024년	전망		
내용	단위		2025년	2029년	2034년
재배면적	ha	791	779	788	802
단수	kg/10a	11,230	11,208	11,236	11,271
국내 생산량	천 톤	88.8	87.3	88.5	90.4
수출량	천 톤	15.2	15.9	17.5	19.7
1인당 소비량	kg	1.4	1.4	1.4	1.4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그림 7-18 파프리카 중장기 생산 전망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Chapter
5

토마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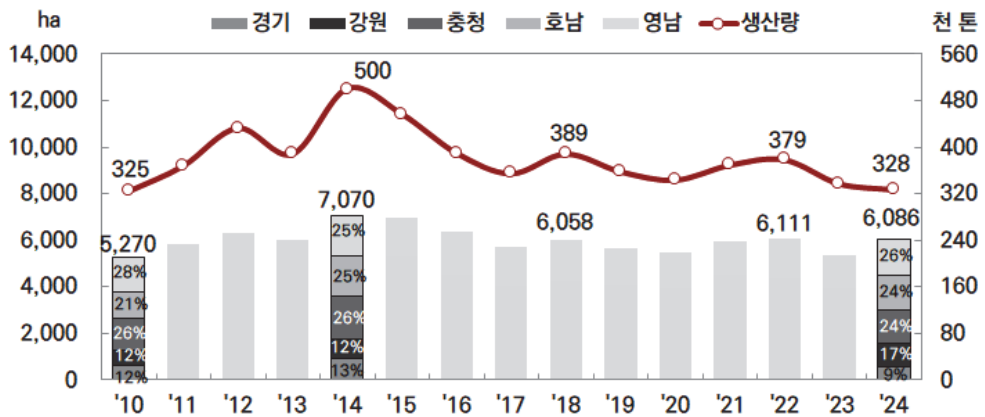
5.1. 수급 동향

5.1.1. 생산 동향

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토마토 재배면적은 2010년 이후 지자체 원예시설지원사업 등으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 7,070ha를 정점으로 감소하였다. 2020년 이후에는 평균 5,800ha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 토마토 생산량은 재배면적 증가와 함께 2014년 가장 많은 50만 톤이었으나, 이후 재배면적 감소 및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최근 5년간 35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그림 7-19 | 토마토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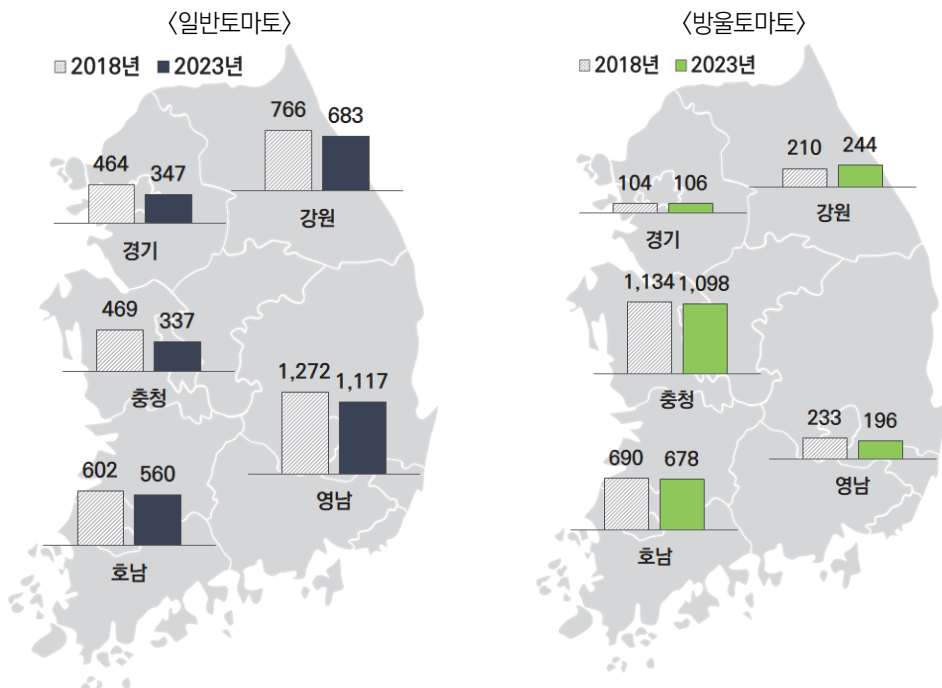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지역별 재배면적 비중(최근 5년 평균)은 영남지역이 2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호남(25%), 충청(24%), 강원(16%), 경기(9%) 순이다.
 - 2014년 이후 영·호남, 충청지역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으나, 강원지역은 시·군의 시설지원 사업 및 기존 농가의 수익성 향상 기대에 따른 재배 규모 확대로 연평균 1.7% 증가하였다.
 - 영남지역의 주산지는 일반토마토의 최대 산지인 부산광역시(대저)와 경남 김해, 경북 경주 등이며, 호남지역은 방울토마토 주산지인 전북 익산과 전남 담양, 화순, 전북 장수 등이다. 충청지역은 방울토마토 주산지인 충남 부여와 논산이 많은 면적 비중을 차지하고, 강원지역은 춘천, 횡성, 철원 등이다.
- 품종별 주산지의 변화를 살펴보면(2018~2023년), 일반토마토의 경우 영남지역이 여전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나, 전반적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방울토마토는 전체 면적이 감소한 가운데 강원지역만 소폭 증가하였다.

그림 7-20 | 토마토 품종별·지역별 재배면적 변화(2018~2023년)

단위: ha



주: 제주는 제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http://uni.agrix.go.kr/docs7/biOlap/dashBoard.do>)

나. 2024년 생산 동향

- 2024년 토마토 재배면적은 전년(2023년)과 평년 대비 각각 12.7%, 5.9% 증가한 6,086ha 이었다.
 - 강원과 충청, 영남지역 등에서 수익성 증대를 기대하여 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하였다.
- 단수는 기상 여건 악화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14.0%, 13.5% 감소한 5,382kg/10a이었다.
 - 2024년 겨울 및 봄철에는 일조량 감소 피해로 작황이 부진하였고, 여름철에는 고온 및 폭우에 따른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하여 생육이 저하되었다.
- 2024년 토마토 생산량은 작황 부진으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1%, 8.3% 감소한 32만 8천 톤으로 추정된다.

표 7-26 | 2024년 토마토 생산 동향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년	6,086	5,382	327.5	
2023년	5,400	6,259	338.0	
평년	5,746	6,219	357.3	
증감률	전년 대비	12.7	-14.0	-3.1
	평년 대비	5.9	-13.5	-8.3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이며, 평년은 2019~2023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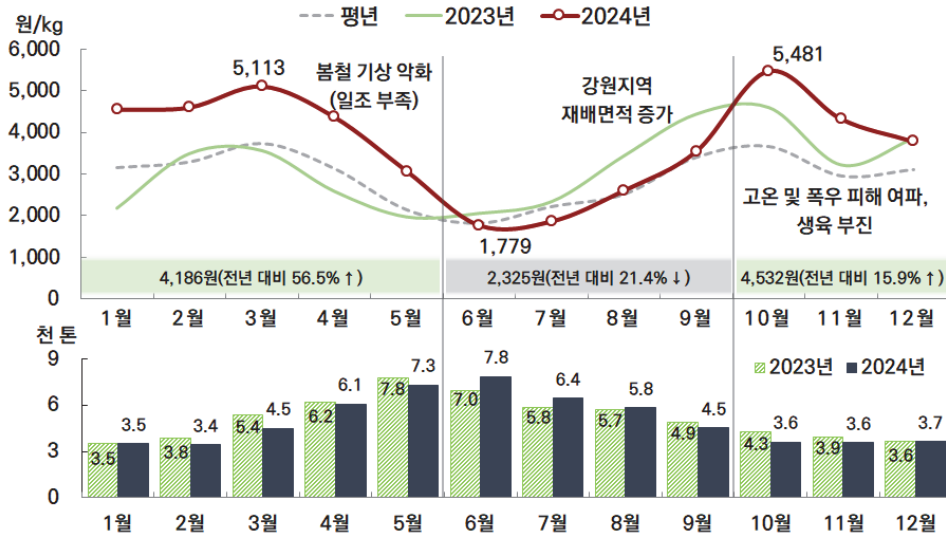
5.1.2. 가격 및 출하 동향²⁰⁾

- 2024년 토마토 전체 품종의 반입량은 전년(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6%, 4.9% 감소한 6만 톤이었으며, 가격은 전년(3,019원) 및 평년(2,778원) 대비 각각 15.5%, 25.5% 높은 3,488원/kg이었다.
 - 1~5월 반입량은 일조시간 감소 피해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7.1% 감소하였고, 가격은 전년(2,675원) 대비 56.5% 높은 4,186원/kg이었다.

20) 서울가락도매시장을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 6~9월 반입량은 강원지역의 재배면적 확대로 전년 대비 5.4% 증가하였고, 가격은 전년 (2,958원) 대비 21.4% 낮은 2,325원/kg이었다.
- 10~12월 반입량은 여름철 고온과 집중호우 여파로 생육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8.4% 감소하였고, 가격은 전년(3,910원) 대비 15.9% 상승한 4,532원/kg이었다.

그림 7-21 | 토마토 월별 가격과 반입량 추이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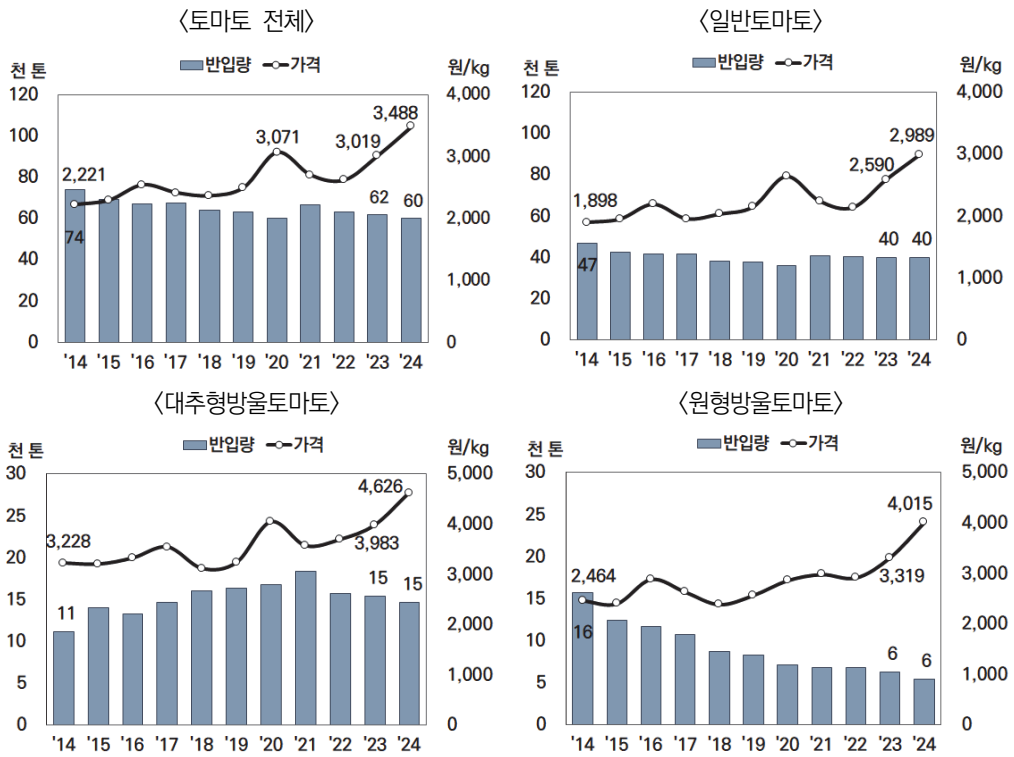
- 품종별 가격과 반입량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이후 재배면적이 줄면서 토마토 전체 반입량이 감소한 가운데, 대추형방울토마토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만, 최근 3년(2022~2024년)은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반입량이 감소하였다.
 - 토마토 가격은 품종 상관없이 최근 3년간 상승하였으며, 특히 반입량 감소 폭에 비해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 발생 증가가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²¹⁾.
 - 2024년 일반토마토 반입량은 강원지역 재배면적 증가로 여름철 출하량이 늘었으나, 영·호남지역의 일조량 감소와 고온 피해로 작황이 부진하여 전년과 비슷한 4만 톤이었

21) 조병수·민초희(2024)는 「기후변화가 국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서 과일 및 채소 등의 농산물가격은 이 상기후에 따른 가격 상승률이 다른 품목(공업제품 등)에 비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낸다고 분석하였다.

다. 2024년 가격은 대체 소비 등으로 소비가 원활하여 전년(2,590원) 대비 15.4% 상승한 2,989원/kg이었다.

- 2024년 대추형방울토마토 반입량은 주산지 침수 및 고온 피해로 전년 대비 4.6% 감소한 1만 5천 톤이며, 가격은 전년(3,983원) 대비 16.1% 상승한 4,626원/kg이었다.
- 2024년 원형방울토마토 반입량은 주산지인 강원지역의 품종 전환(대추형, 일반토마토 등)에 따른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 부진으로 전년 대비 12.9% 감소한 5천 515톤이었으며, 가격은 전년(3,319원) 대비 21.0% 상승한 4,015원/kg이었다.

| 그림 7-22 | 토마토 품종별 가격과 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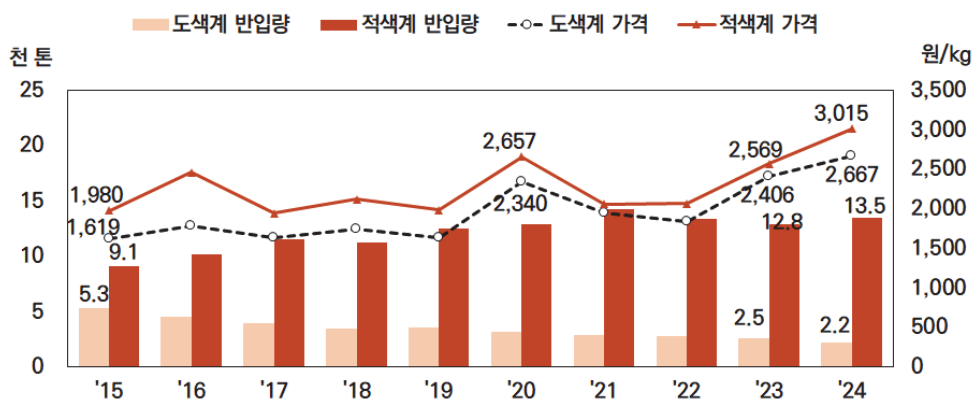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일반토마토의 도색계·적색계 품종 출하 추이

- 최근 10년간 일반토마토의 품종별(도색계(桃色, 동양계)와 적색계(赤色, 유럽계)) 반입량 및 가격 추이를 살펴보았다.
 - 도색계 반입량은 2015년 5,300톤에서 연평균 9.8% 감소하여 2024년 2,200톤 수준이다. 적색계 반입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4% 증가하여 2024년 1만 3,500톤 수준이며, 적색계 반입 비중은 2015년 63%에서 2024년 86%까지 증가하였다.
 - 도색계 가격(실질가격)은 2015년 1,619원/kg에서 반입량 감소에 따라 연평균 5.5% 상승하여 2024년에는 2,667원/kg이었다. 적색계 가격은 반입량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4.7% 상승하여 2024년 3,015원/kg이다.
 - 적색계 토마토의 반입량 증가와 가격 상승 이유는 경도가 높은 특성상 소비가 생식용에 국한되지 않고, 가공 또는 식자재료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그 활용도가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 재배관리와 유통과정에서 중요한 경도 측면에서 적색계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이 있어 도색계 재배농가에서의 품종 전환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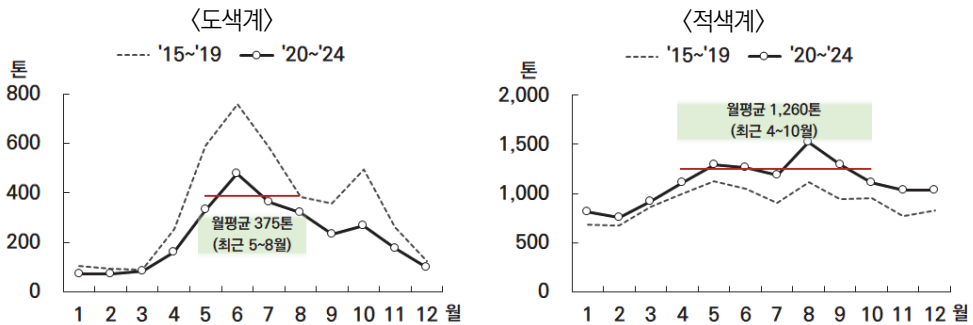
그림 7-23 | 일반토마토 품종별(도색계, 적색계) 반입량과 가격 추이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가락도매시장 청과법인 내부자료

- 월별 반입량을 살펴보면, 도색계는 5~8월 출하량이 월평균 375톤(2020~2024년 평균)으로 주 출하시기가 뚜렷하나, 적색계는 겨울철을 제외하면 연중 고르게 출하되고 있다.
- 도색계는 적색계로의 품종 전환 등으로 과거 5년(2015~2019년) 대비 주 출하기 월평균 반입량이 줄어들었고, 적색계는 재배면적 증가와 생산성 증대 등으로 주 출하기(4~10월) 월평균 반입량이 1,260톤 수준까지 늘었다.

| 그림 7-24 | 도색계 및 적색계 품종의 월별 반입량 변화(5년 평균)



자료: 서울가락도매시장 청과법인 내부자료

5.1.3. 수출입 동향²²⁾

- 토마토 수출은 2010년 이후 연평균 6.1% 증가하였으나, 2024년 수출량은 전년(7,516톤) 대비 29.8% 감소한 5,278톤이었다.
- 토마토 수출 가운데 가장 큰 비중(5년 평년 기준, 62%)을 차지하는 신선토마토의 2024년 수출량은 국내 작황 부진과 가격 상승으로 전년(3,545톤) 대비 큰 폭 감소한 1,593톤이었다. 최근 3년간 신선토마토의 수출은 국내 작황 부진과 가격 상승, 주요 수출 대상국인 일본의 자국 생산 확대 등²³⁾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22) 토마토 수출입 품목은 신선토마토(HS Code: 0702000000, 0702001000, 0702009000), 케첩(HS Code: 2103201000), 소스(HS Code: 2103202000), 주스(HS Code: 2009500000), 페이스트(HS Code: 2002901000), 조제·저장처리 토마토(HS Code: 2002100000) 등을 포함한다.

23) 일본 시장에서 한국산 신선 토마토의 유통 비중(금액 기준)은 0.5%로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한국산은 수송 거리가 짧고, 공급 안정성이 높은 데다, 외식업체 또는 반찬 제조업체 등에서의 수요가 높아 일본 토마토 수입량의 60% 이상(2023년 기준)을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작황 부진과 일본의 산지 규모화 및 생산성 증대로

- 토마토 케첩 수출량은 3,490톤으로 전년(3,586톤) 대비 2.7% 감소하였으며, 2010년 이후 연평균 8.4% 증가하였다.
- 토마토 소스는 169톤으로 전체의 3%를 차지하며, 전년(187톤) 대비 9.2% 감소하였다.
- 토마토 수입은 2010년 이후 연평균 3.9% 증가하였으며, 2024년 수입량은 전년(6만 3천 톤) 대비 17.1% 증가한 7만 3천 톤이었다.
 - 토마토 페이스트 수입량은 전년(3만 1천 톤) 대비 10.8% 증가한 3만 4천 톤이었으며, 중국(2024년 기준, 62%)과 미국(24%)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조제·저장처리 토마토 수입량은 전년(1만 9천 톤) 대비 26.8% 증가한 2만 5천 톤이었으며, 주 수입국은 이탈리아(69%)와 미국(25%)이다.

표 7-27 | 토마토 수출입 동향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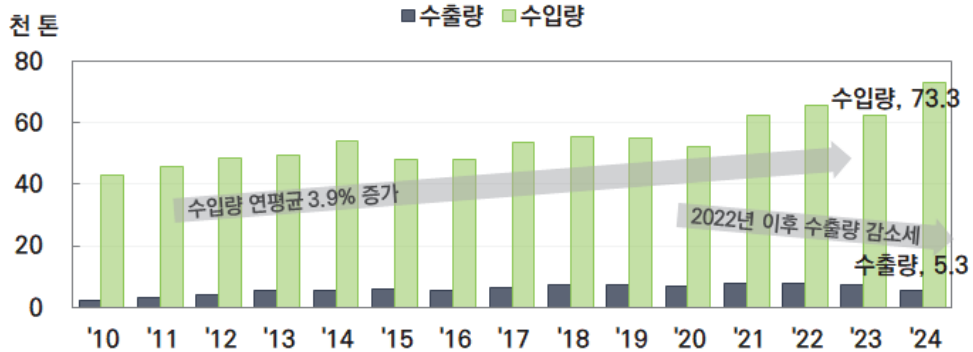
구분		2010년	2015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량	신선	1,071	3,779	4,315	5,013	4,518	3,545	1,593
	케첩	1,122	1,820	2,317	2,660	3,062	3,586	3,490
	기타	110	139	77	201	240	385	195
	전체	2,303	5,738	6,709	7,874	7,820	7,516	5,278
수입량	페이스트	26,164	25,627	24,818	30,988	30,824	30,923	34,262
	조제·저장	8,608	12,397	17,181	19,435	21,987	19,448	24,665
	케첩	1,535	2,194	3,140	3,854	4,233	4,028	3,995
	소스	4,803	5,028	5,419	6,184	6,271	5,894	6,548
	기타	1,995	3,030	1,528	2,053	2,224	2,312	3,850
	전체	43,105	48,276	52,087	62,514	65,540	62,604	73,320

주: 2024년은 잠정치임.

자료: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최근 3년간 對일본 수출은 감소 추세(2021년 4,818톤→2022년 4,407톤→2023년 3,414톤→2024년 1,515톤)이다(관세청,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4 일본의 한국식품 시장 실태조사(작성자: (주)후지경제)」 (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licationView.do?board_seq=101487&menu_dept2=49&menu_dept3=53)에서 재인용(검색일: 2024.12.27.)).

| 그림 7-25 | 토마토 수출입량 추이



주: 2024년은 잠정치임.

자료: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5.2. 수급 전망

5.2.1. 2025년 전망

- 2025년 토마토 정식(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4년 10~12월은 영남지역(부산, 김해 등)과 충청지역(부여, 청양 등)에서 수익성 향상을 기대하여 기존 재배 규모를 확대하여 전년(2023년) 대비 1.8% 증가하였다.
 - 2025년 1~3월은 이른 정식(5→3월) 및 품종 간 전환으로 일반토마토의 정식 의향이 높으나, 전체 토마토 정식면적은 전년(2024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 4~6월은 전년 수해 피해로 휴경을 했던 충청지역(논산, 부여, 청양 등)의 대추형방울토마토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정식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조사되어 전년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7~9월은 강원 및 영남지역에서 수익성 확대를 위해 작기를 앞당기거나 정식 규모를 늘리려는 의향이 높아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28 | 2025년 시기별 토마토 정식(의향)면적

단위: %

구분	2024년	2025년			전체
	10~12월	1~3월	4~6월	7~9월	
비중	28.5	20.0	20.7	30.8	100.0
전년 대비 증감률	1.8	0.4	2.8	1.2	1.5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2025년 토마토 재배면적은 전년(2024년) 대비 1.5% 증가한 6,180ha로 전망된다.
 - 충청 및 영남지역에서 재배 규모를 확대하여 일반토마토와 대추형방울토마토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25년 토마토 단수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5,535kg/10a로 전망된다.
 - 여름철 고온 여파 및 일조시간 부족 등으로 겨울 작형의 생육이 부진하여 평년 대비 감소하겠으나, 전반적으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2024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2025년 토마토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4.4% 증가한 34만 2천 톤으로 전망된다.

표 7-29 | 2025년 토마토 생산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5년	6,180	5,535	342.1
2024년	6,086	5,382	327.5
평년	5,872	5,968	350.5
증감률	전년 대비	1.5	2.9
	평년 대비	5.2	-7.3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5년 1~2월 출하 전망

- 2025년 1월 일반토마토 출하량은 전년(2024년) 대비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면적은 영남지역에서 침수 피해에 따른 정식 지연으로 주 출하 시작이 늦어져 전년 대비 2.4% 감소하였다.
 - 단수는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가을에 정식한 나무의 수세가 약화되어 착과율이 낮고 생육이 부진해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2월 일반토마토 출하면적은 영남지역에서 재배 규모를 확대하여 전년 대비 1.5% 증가할 전망이다.

표 7-30 | 일반토마토 1월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충청	호남	영남	전체
비중	5.3	48.6	46.1	100.0
출하면적	0.2	1.6	-7.0	-2.4
단수	-0.1	-1.7	-1.5	-1.5
출하량	0.1	-0.1	-8.4	-3.9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2025년 1월 대추형방울토마토 출하량은 전년 대비 3.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면적은 충청지역의 출하 지연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하였다.
 - 단수는 정식 이후 기상 악화로 수세가 약하고 숙기가 지연되어 전년 대비 2.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 2월 대추형방울토마토 출하면적은 재정식 또는 지연된 면적에서 출하되겠으나, 작황 부진으로 조기 종료하여 전년 대비 0.6% 감소할 전망이다.

표 7-31 | 대추형방울토마토 1월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체
비중	7.9	33.3	44.1	14.7	100.0
출하면적	-1.6	-3.0	-0.3	-0.1	-1.3
단수	-0.2	-3.1	-2.3	-0.1	-2.1
출하량	-1.8	-6.0	-2.6	-0.3	-3.3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5.2.2. 중장기 전망

- 토마토 재배면적은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2025년 6,180ha에서 2034년 6,305ha로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토마토 단수는 2025년 5,535kg에서 2034년 6,120kg/10a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후변화에 따른 일시적 생산성(노동생산성·토지생산성 등) 저하²⁴⁾ 가능성은 존재하나, 스마트팜 관련 사업 확대, 품종 개발 등 정부의 중·장기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으로 단수는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 따라서 토마토 생산량은 2025년 34만 2천 톤에서 연평균 1.3% 증가하여 2034년 38만 6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토마토 수출량은 생산량 증가와 함께 수출국 다변화로 2034년 2만 7천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토마토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식습관의 서구화 및 건강 지향적 식생활 트렌드가 지속되어 2034년에는 7.1kg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32 | 토마토 중장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4년	전망		
			2025년	2029년	2034년
재배면적	ha	6,086	6,180	6,199	6,305
단수	kg/10a	5,382	5,535	6,020	6,120
국내 생산량	천 톤	327.5	342.1	373.2	385.9
수출량	천 톤	24.0	25.6	26.3	26.7
1인당 소비량	kg	5.9	6.1	6.8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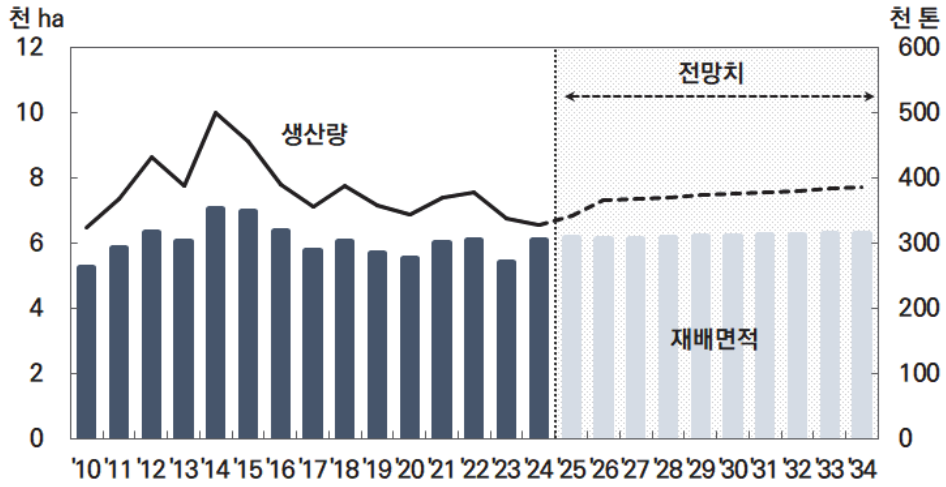
주 1)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2) 수출량은 케첩, 소스, 페이스트, 주스 등에 수율을 적용하여 신선토마토로 환산한 중량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24) 박경훈 외(2021)는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연재해나 기온 상승 등으로 노동생산성이 저하되고 농축수산물 생산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정원석·이솔빈·조은정(2024)의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글로벌 평균 기온 상승이 국내 이상기후 발생 증가에 영향을 미쳤고, 국내 이상기후가 농림어업 GDP 성장률의 최대 1.1%p 하락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 그림 7-26 | 토마토 중장기 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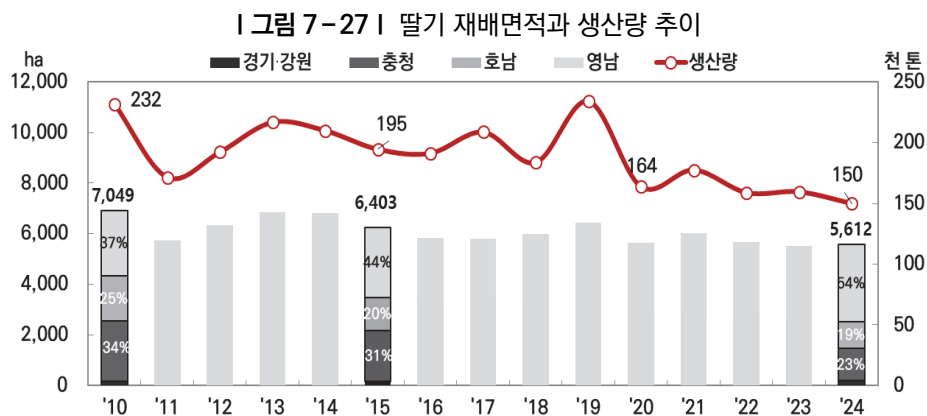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6.1. 수급 동향

6.1.1. 생산 동향

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딸기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 타 작목 전환 등으로 2010년 7,049ha에서 감소하며 최근 3개년 평균 5,650ha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 딸기 생산량은 재배면적 변동에 따라 증감을 하고 있으나 수확량이 높은 수경재배 확대와 다수확 품종의 재배가 확대되면서 2020년까지 20만 톤 내외를 유지하였다. 2020년대 이후 기상 여건 악화와 재배면적 감소 폭 증가로 최근 3개년 생산량은 16만 톤 수준까지 감소하였다.



- 지역별로 보면, 영남지역 재배면적 비중은 2010년 37%에서 2024년 54%까지 증가하며 전체 재배면적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충청과 호남지역 재배면적 비중은 2010년 각각 34%, 2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2024년 23%, 19%로 나타나, 전체 딸기 재배면적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딸기 품종별 비중은 ‘설향’이 81%로 가장 높으나, 최근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며 그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 2000년대 중반 국내에서 개발된 ‘설향’ 품종은 수확량이 많고, 병해에 강한 장점이 있어 농가의 선호도가 높아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최근 인기가 높은 ‘킹스베리’ 등 신품종 재배 의향이 증가하면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기존 수출용 품종인 ‘매향’은 ‘금실’로 대체되었는데, 기존 품종 대비 품질이 좋아 수출 국에서의 선호도가 높고 국내 판매도 가능하여 농가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 표 7-33 | 딸기 품종별 재배면적 비중

단위: %

구분	설향	금실	장희	죽향	매향	기타
2024/25년	80.6	8.8	1.9	3.0	0.4	5.2
2023/24년	81.2	7.5	2.2	3.4	0.9	4.8
2022/23년	82.1	7.4	2.4	3.0	1.2	3.8
2021/22년	83.1	5.6	2.3	2.7	2.5	3.9
2020/21년	84.3	3.5	2.3	2.2	4.5	3.2
2019/20년	86.0	1.2	4.7	2.7	2.6	2.7
2015/16년	81.3	-	6.1	5.9	2.5	4.2
2010/11년	55.5	-	20.5	-	3.5	20.5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나. 2024년 생산 동향

- 2023/24년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하나 평년 대비 3.9% 감소한 5,612ha이었다. 전년 출하기 딸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으나, 농가 고령화 등으로 면적 증가폭은 제한적이었다.
- 딸기 단수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육묘 생육이 부진하여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2%, 6.5% 감소하였다.

- 딸기 생산량은 단수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6.0%, 10.2% 감소한 15만 톤으로 추정된다.

표 7-34 | 2024년 딸기 생산 동향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3/24년	5,612	2,671	149.9
2022/23년	5,600	2,848	159.5
평년	5,840	3,153	166.9
증감률	전년 대비	0.2	-6.2
	평년 대비	-3.9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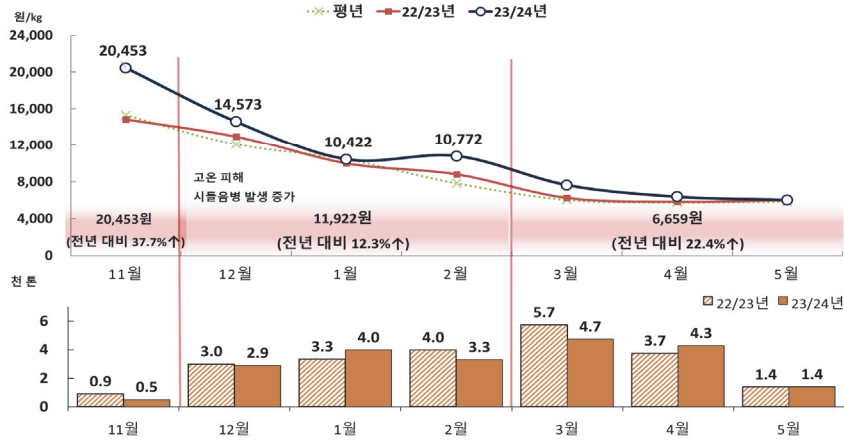
주: 2023/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이며, 평년은 최근 5개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6.1.2. 가격 및 출하 동향²⁵⁾

- 2023/24년 딸기 가격은 전년(8,874원) 및 평년(8,444원) 대비 각각 7.5%, 13.0% 상승한 9,539원/kg이었다. 딸기 반입량은 생산량 감소로(전년 대비 6.0% 감소)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4.7%, 9.2% 감소한 2만 1천 톤이었다.
 - 2023년 11월 가격은 전년(14,858원) 및 평년(15,287원) 대비 각각 37.7%, 33.8% 상승한 20,453원/kg이었다.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은 육묘 생육 부진 및 조기 정식한 농가의 장마 피해로 출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2023년 12월~ 2024년 2월 가격도 전년(10,589원) 및 평년(10,119원) 대비 각각 12.%, 7.9% 높은 11,922원/kg이었다. 작황 부진 영향이 이어지면서 딸기 출하가 원활하지 못해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25) 서울가락도매시장을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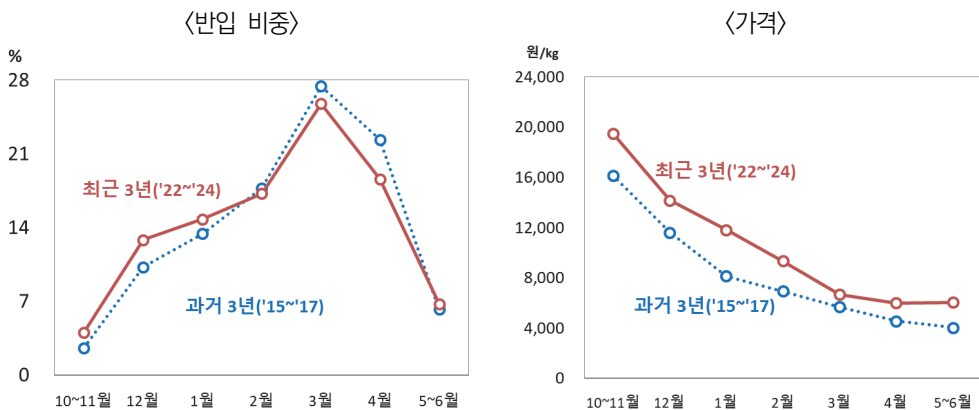
그림 7-28 | 딸기 월별 가격과 반입량 추이



주: 가격은 가락시장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 딸기 가격은 출하 초기에 높게 형성되었다가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점차 출하를 앞당기려는 농가 의향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2022~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의 출하 비중이 과거 대비 4%p 상승하였다.
 - 출하 초 딸기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겨울철 수요가 높기 때문으로, 이 시기 대형유통업체에서 판촉 행사와 연말 행사(크리스마스 등)로 소비가 증가하여 반입량 비중 증가에도 가격은 과거 대비 높은(21.1% 상승)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7-29 | 딸기 반입 비중과 가격



주: 가격은 가락시장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6.1.3. 수출입동향²⁶⁾

- 2024년 신선 딸기 수출량은 전년(4,744톤) 대비 3.9% 감소한 4,560톤이었다.
 - 수출량 감소 이유는 육묘기 기상 여건 악화로 작황이 좋지 못해 2023/24년산 딸기 생산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국가별 수출 비중은 싱가포르가 28%로 가장 높고, 태국, 홍콩 순으로 나타났다.
 - 과거에는 홍콩과 싱가포르로 대부분 수출되었으나, 수출국 다변화의 노력으로 태국, 베트남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7-35 | 신선 딸기 국가별 수출 동향

단위: 톤

구분	2015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3,293	5,259	4,574	4,557	3,733	4,744	4,560
홍콩	1,304	1,753	1,601	1,791	1,148	1,147	826
싱가포르	1,083	1,415	1,209	1,023	764	1,268	1,269
태국	308	676	655	584	561	974	1,175
베트남	-	620	518	510	615	572	443
말레이시아	416	507	351	299	258	288	293

주: 2024년은 잠정치임.
자료: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2024년 냉동딸기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와 소비 증가로 전년 대비 31.3% 증가하였다.
 - 딸기 관련 제품들의 인기로 가공공장, 베이커리, 카페 등 대량 수요처에서의 높은 수요로 냉동딸기 수입량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26) 딸기 수출입 품목은 신선딸기(HS Code: 0810100000), 냉동딸기(HS Code: 0811100000), 주스(HS Code: 2009891020), 기타(HS Code: 2008800000) 등을 포함한다.

표 7-36 | 딸기 수출입 동향

단위: 톤

구분		2015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출량	신선	3,293	5,259	4,574	4,557	3,733	4,744	4,560
	냉동	382	445	234	242	296	330	374
	기타	3	39	18	23	34	46	81
	전체	3,678	5,742	4,825	4,822	4,066	5,161	5,016
수입량	냉동	7,659	8,479	7,887	9,016	12,217	12,771	16,774
	주스	230	394	246	300	315	412	623
	기타	899	967	782	954	1,235	716	1,035
	전체	8,788	9,840	8,915	10,269	13,766	13,899	18,431

주: 2024년은 잠정치임.
 자료: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6.2. 수급 전망

6.2.1. 2025년 전망

- 2024/25년 딸기 재배면적은 전년산 가격 강세로 전년(2023/2024년) 대비 1.4% 증가한 5,691ha로 조사되었으며, 단수는 전년 대비 3.4% 증가한 2,761kg/10a로 전망된다.
 - 정식기 고온으로 초기 생육은 부진하였으나, 이후 기상 여건 호조로 작황이 회복되며 전반적인 생육상황은 전년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25년 딸기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증가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나 평년 대비 5.8% 감소한 15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표 7-37 | 2025년 딸기 생산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25년		5,691	2,761	157
2023/24년		5,612	2,671	150
평년		5,840	2,828	167
증감률	전년 대비	1.4	3.4	4.8
	평년 대비	-2.6	-2.4	-5.8

주: 2023/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4/25년은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5년 1~2월 출하 전망

- 2025년 1월 딸기 출하량은 출하면적 증가로 전년(2024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면적은 전년산 딸기 가격 강세로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단수는 정식기 고온으로 생육이 지연되었으나 이후 생육 여건 호조로 작황이 회복되며 생육이 좋지 못했던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38 | 딸기 1월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충청	호남	영남	전체
비중	23.6	18.3	57.1	100.0
출하면적	1.6	1.4	1.3	1.4
단수	2.3	0.9	1.1	1.3
출하량	3.9	2.3	2.4	2.7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2월 출하면적은 재배면적이 늘어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7-39 | 딸기 2월 출하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구분	충청	호남	영남	전체
비중	27.3	18.5	54.2	100.0
출하면적	1.5	1.4	1.4	1.4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7.2.2.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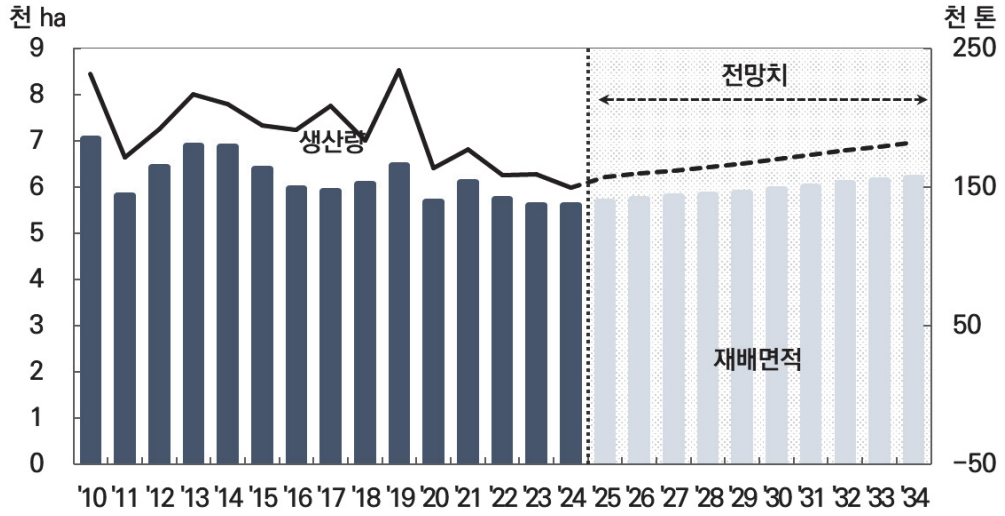
- 딸기 재배면적은 2034년 6,382ha로 연평균 1.3%씩 완만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딸기 수요 증가로 가격이 높게 유지되면서 농가 재배의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배면적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배농가의 고령화로 면적 증가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품종별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설향의 비중은 감소하고 금실, 킹스베리, 비타베리 등 다양한 품종의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나, 향후에도 설향 재배 비중은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딸기 생산량은 다수확 방식인 고설 재배면적 확대에 의한 단수 증가로 2034년에는 18만 8천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량은 동남아시아 수요가 꾸준히 늘어 2034년 6천 5백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주요 수출국이었던 홍콩과 싱가포르는 꾸준히 수출량이 증가하며,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동남아시아 수출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 딸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생산량 증가로 2034년 4.0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겨울철 대표 품목으로 소비 대체 품목이 많지 않고, 섭취의 편리성, 품종 개발에 의한 품질 개선 등으로 향후에도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7-40 | 딸기 중장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4년	전망		
			2025년	2029년	2034년
재배면적	ha	5,612	5,691	5,983	6,382
단수	kg/10a	2,671	2,761	2,841	2,941
국내 생산량	천 톤	149.9	157.1	170.0	187.7
수출량	천 톤	5.01	5.63	5.79	6.45
1인당 소비량	kg	3.2	3.3	3.6	4.0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그림 7-30 | 딸기 종장기 생산량 전망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KASMO)

제 5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Chapter 7 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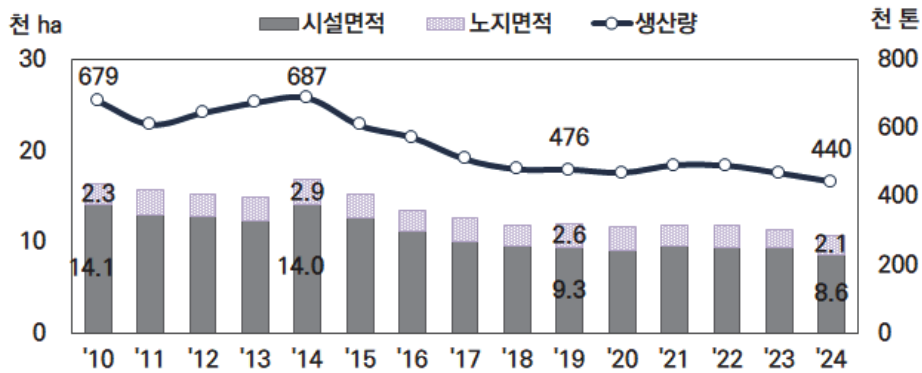
7.1. 수급 동향

7.1.1. 생산 동향

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수박 재배면적은 작물의 특성상 관리 및 수확 작업의 어려움 등으로 작업 부담이 커 농가가 고령화되면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 2010년 1만 6천 ha에서 연평균 3.0% 감소하여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1만 1천 ha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면적 가운데 시설과 노지 재배면적은 각각 80%와 20% (최근 5년 평균)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 재배면적은 연평균 3.4%, 노지는 연평균 0.7% 감소하였다.

그림 7-31 | 수박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지역별 재배면적은 부여, 음성 등을 중심으로 충청지역이 가장 큰 비중(최근 5년 평균, 40%)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영남지역(28%), 호남지역(25%) 순이다.
 - 충청과 영남지역의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작목 전환 등으로 2019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강원지역은 양구군의 지자체 지원사업 및 조직화 등으로 동기간 대비 증가하였다.
- 수박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줄면서 2010년 이후 연평균 3.1%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47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나. 2024년 생산 동향

- 2024년 수박 재배면적은 전년(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3%, 8.8% 감소한 1만 673ha이었다.
 - 시설 재배면적은 농가의 고령화에 따른 재배 규모 축소 및 작목 전환, 여름철 침수 피해 등으로 전년 대비 7.8% 감소한 8,603ha이었다.
 - 노지 재배면적은 전년 가격 상승으로 노지 작물에서 일부 전환되어 전년 대비 6.4% 증가한 2,070ha이었다.
- 2024년 수박 단수는 전년과 비슷하나 평년 대비 1.2% 증가한 4,122kg/10a이었다.
- 2024년 수박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로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5.4%, 7.7% 감소한 44만 톤으로 추정된다.

표 7-41 | 2024년 수박 생산 동향

단위: ha, kg/10a, 천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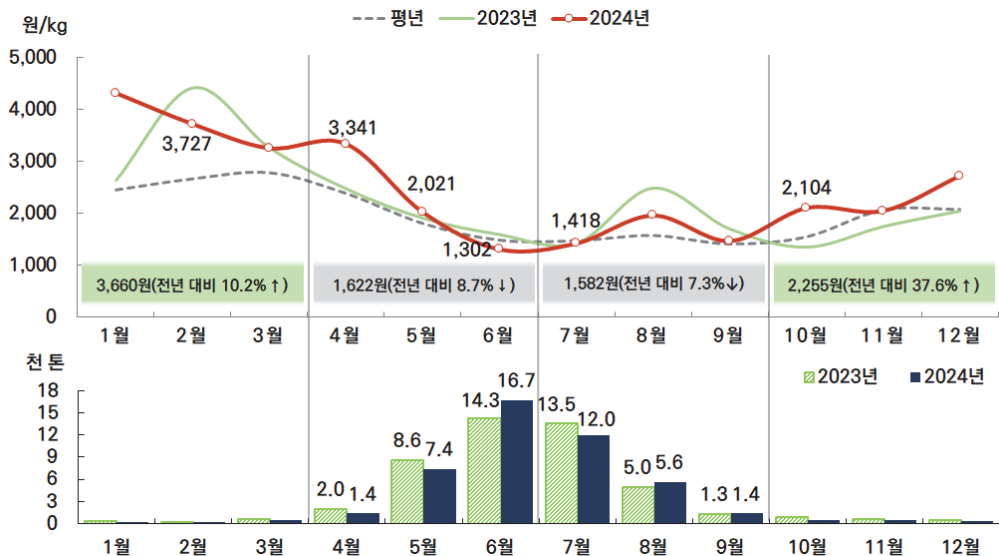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년	10,673	4,122	439.9	
2023년	11,276	4,125	465.1	
평년	11,697	4,074	476.5	
증감률	전년 대비	-5.3	-0.1	-5.4
	평년 대비	-8.8	1.2	-7.7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이며, 평년은 2019~2023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7.1.2. 가격 및 출하 동향

- 2024년 수박 전체 품종의 반입량²⁷⁾은 전년(2023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4%, 8.3% 감소한 4만 7천 톤이었으며, 가격은 전년(1,780원) 대비 6.4% 하락한 1,665원/kg이었다.
 - 1~3월 반입량은 봄철 일조량 감소에 따른 생육 부진으로 전년 대비 30.1% 감소하였고, 가격은 전년(3,322원) 대비 10.2% 상승한 3,660원/kg이었다.
 - 4~6월 반입량은 재배면적 증가와 봄철 부진했던 생육 회복으로 전년 대비 2.4% 늘었고, 가격은 전년(1,776원) 대비 8.7% 하락한 1,622원/kg이었다.
 - 7~9월 반입량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고온 피해로 전년 대비 4.1% 감소하였으나, 가격은 품질 저하로 전년(1,707원) 대비 7.3% 하락한 1,582원/kg이었다.
 - 10~12월은 9월 침수 피해 등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반입량이 줄어 평균 가격은 전년 (1,639원) 대비 37.6% 상승한 2,255원이었다.

그림 7-32 | 수박 월별 가격과 반입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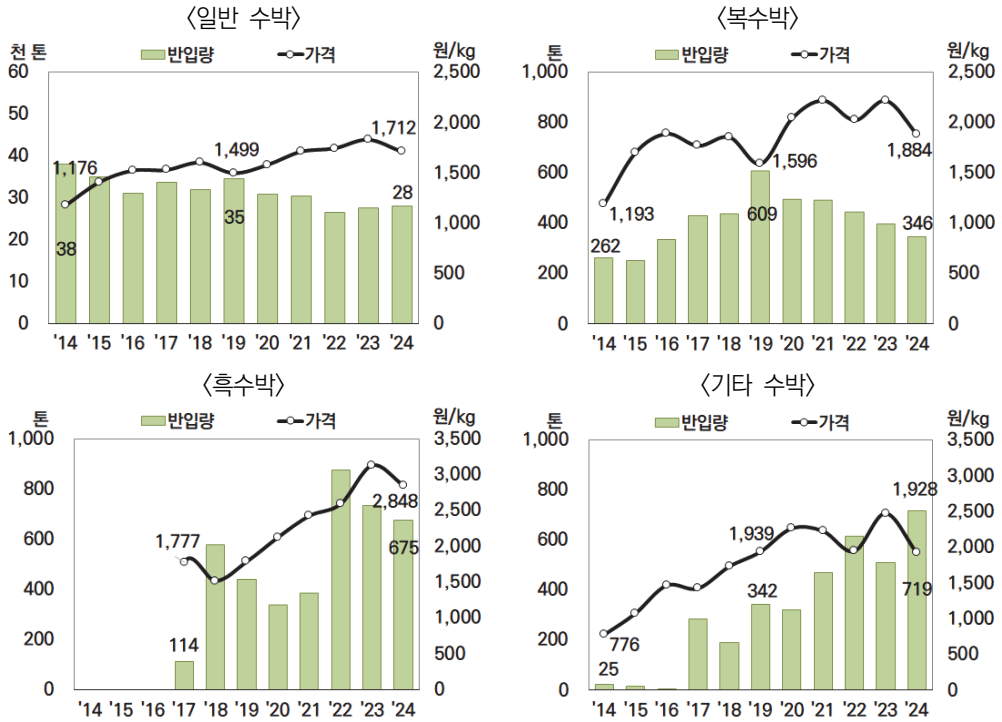
주: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27) 서울가락도매시장을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 품종별²⁸⁾로 살펴보면, 수박 전체 품종 가운데 일반 수박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비중(94%)을 차지한다.
 - 일반 수박은 2016년까지 전체 수박 거래량의 99%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소비자 선호에 따라 소과종 및 신품종이 개발되면서 흑수박, 복수박, 애플수박 등의 시장 점유율도 늘고 있다.
- 일반 수박 반입량은 재배 규모 축소 및 작목 전환 등으로 재배면적이 줄면서 2014년 3만 8천 톤에서 최근 5년 평균 2만 9천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2024년 일반 수박 반입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2만 8천 톤이었으며, 가격은 전년(1,831원) 대비 6.5% 하락한 1,712원/kg이었다. 대체 수요 증가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던 전년 대비 소비가 감소하였고, 품질 저하 등으로 가격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다.
- 복수박 반입량은 소과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609톤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 2024년 복수박 반입량은 전년 대비 13.4% 감소한 346톤이었으며, 가격은 반입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품질 하락 등으로 전년(2,223원) 대비 15.3% 낮은 1,884원/kg이었다.
- 흑수박 반입량은 2022년 875톤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여름철 작황 부진 등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 2024년 흑수박 반입량은 전년 대비 8.1% 감소한 675톤이었으며, 가격은 2,848원/kg으로 전년(3,125원) 대비 8.8% 낮은 수준이었다.
- 기타 수박(블랙망고수박, 애플수박 등)은 수박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신품종으로 개발된 이후 블랙망고수박과 애플수박을 중심으로 반입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2024년 기타 수박 반입량은 전년 대비 41.0% 증가한 719톤이었으며, 가격은 전년(2,478원) 대비 22.2% 하락한 1,928원/kg이었다.

28) 서울가격도매시장 청과법인 자료를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그림 7-33 | 수박 품종별 가격과 반입량 추이



주 1)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주 2) 기타 수박은 애플수박, 블랙망고수박 등임.

자료: 서울가락도매시장 청과법인 내부자료

7.2. 수급 전망

7.2.1. 2025년 전망

- 2025년 수박 정식(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1.1%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4년 10~12월은 영남지역(의령, 함안 등)에서 고령화, 인력 부족 등으로 전년(2023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5년 1~3월은 충청지역(부여, 음성 등)에서 재배·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작목(딸기, 멜론, 토마토 등)을 전환하려는 의향이 늘어 전년(2024년) 대비 0.9% 감소할 전망이다.
 - 4~6월은 충청(논산, 부여, 음성 등) 및 영남(영주 등)지역에서 여름철 고온 및 수해 등으로 2기작을 휴경하거나 작목(벼, 멜론, 고추 등)을 전환하려는 의향이 높아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7~9월은 충청지역에서 재배 규모를 축소하려는 의향이 늘어 전년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42 | 2025년 시기별 수박 정식(의향)면적

단위: %

구분	2024년	2025년			전체
	10~12월	1~3월	4~6월	7~9월	
비중	8.7	42.6	44.2	4.5	100.0
전년 대비 증감률	-1.2	-0.9	-1.4	-1.0	-1.1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2025년 수박 재배면적은 충청 및 영남지역의 재배 규모 축소 및 작목 전환으로 전년(2024년) 대비 1.1% 감소한 1만 551ha로 전망된다.
- 2025년 수박 단수는 겨울 작형의 생육 지연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나 평년과 비슷한 4,105kg/10a로 전망된다. 다만, 기상 여건에 따라 단수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 2025년 수박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줄어 전년 대비 1.6% 감소한 43만 3천 톤으로 전망된다.

표 7-43 | 2025년 수박 생산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5년	10,551	4,105	433.1	
2024년	10,673	4,122	439.9	
평년	11,535	4,100	472.9	
증감률	전년 대비	-1.1	-0.4	-1.6
	평년 대비	-8.5	0.1	-8.4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2025년 1~2월 출하 전망

- 2025년 1월 수박 출하량은 전년(2024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면적은 영남지역(함안, 의령 등)에서 고령화로 재배 규모를 축소하여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다.
 - 단수는 착과가 양호하고 해충 피해로 작황이 부진했던 전년 대비 생육이 양호해 전년 대비 0.6%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 2월 출하면적은 영남지역에서 재배 규모를 축소하거나 정식시기를 늦춰 전년 대비 1.8% 감소할 전망이다.

표 7-44 | 수박 1월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출하면적	단수	출하량
-2.0	0.6	-1.4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7.2.2. 중장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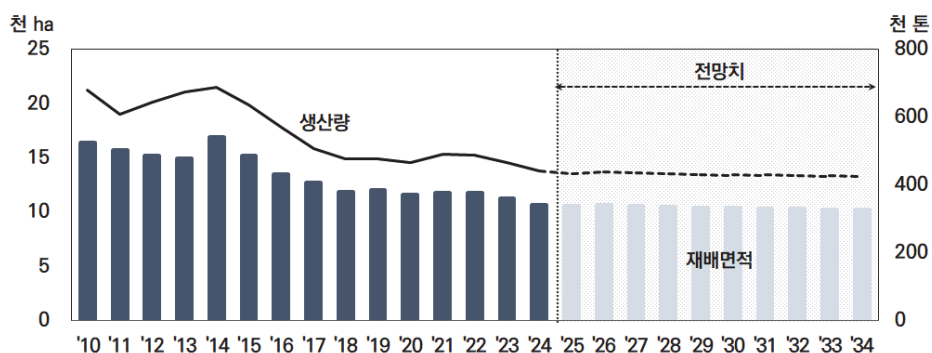
- 수박 재배면적은 2025년 1만 551ha에서 완만하게 줄면서 2034년에는 1만 184ha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박 재배는 포복성 작물 특성상 낮은 자세로 작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수확 및 운반 시 과실 무게에 따른 고강도 노동에 대한 부담이 있어 고령 농가에서는 점차 재배 규모를 축소하거나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수박 단수는 2025년 4,105kg/10a에서 연평균 0.2% 증가하여 2034년에는 4,179kg/10a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수박 생산량은 단수가 완만하게 증가하나 재배면적 감소로 2025년 43만 3천 톤에서 2034년에는 42만 6천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1인당 연간 수박 소비량은 2034년까지 현재 수준(8.4kg)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7-45 수박 종장기 수급 전망

구분	단위	2024년	전망		
			2025년	2029년	2034년
재배면적	ha	10,673	10,551	10,415	10,184
단수	kg/10a	4,122	4,105	4,138	4,179
국내 생산량	천 톤	439.9	433.1	431.0	425.6
1인당 소비량	kg	8.5	8.4	8.4	8.4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그림 7-34 수박 종장기 생산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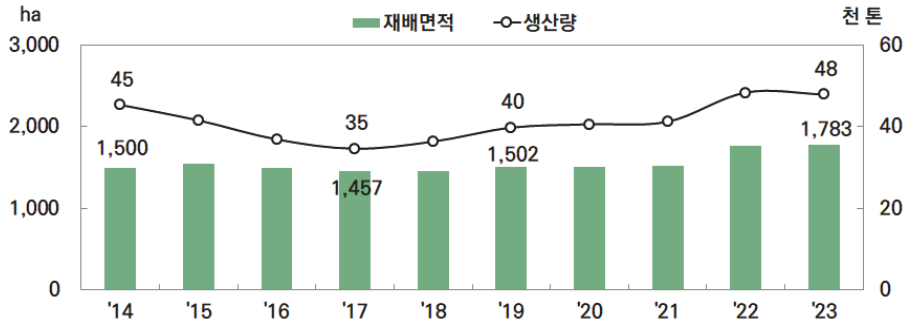
주: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 멜론 생산, 가격 및 수출입 동향

1. 생산 및 가격 동향

- 멜론 재배면적은 2014년 이후 타 품목(수박 등)에서 전환되면서 연평균 1.9%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 1,600ha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재배면적은 전년(2022년) 대비 소폭 증가한 1,783ha이었다.
- 생산량은 2014년 이후 단수 감소에 따라 2017년 3만 5천 톤까지 감소하였으나, 이후 재배면적이 늘면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23년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증가하였지만, 단수 감소로 전년 대비 1.0% 감소한 4만 8천 톤이었다.

그림 7-35 | 멜론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 지역별 멜론 재배면적 비중(2023년 기준)은 충청지역이 41%로 가장 높고, 다음은 호남과 영남 순이다.
 - 충청지역은 충남 부여, 청양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영남지역은 감소 추세이다.

표 7-46 | 지역별 멜론 재배면적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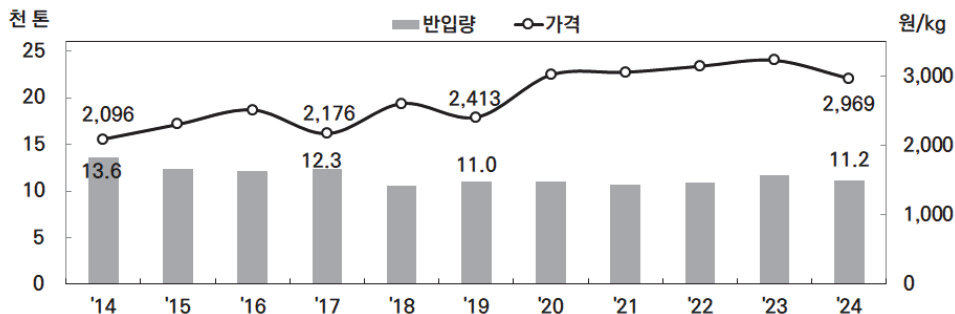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2015년	2019년	2023년
경기·강원	2.2	3.3	3.4
충청	37.0	34.8	41.3
호남	30.5	30.5	29.3
영남	30.3	31.4	26.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 멜론 반입량은 최근 10년간 평균 1만 1천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가격은 연평균 3.2% 상승하였다.
 - 다만, 2024년 가격은 2,969원/kg으로 대체 소비가 많았던 전년(2023년, 3,233원) 대비 8.1% 하락하였다.

그림 7-36 | 멜론 가격과 반입량 추이



주 1) 반입량은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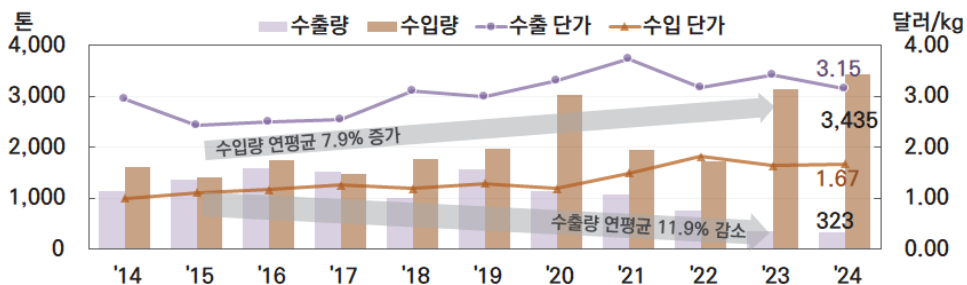
2) 가격은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2. 수출입 동향

- 신선 멜론 수출량은 2014년 이후 연평균 11.9% 감소세이며, 수입량은 연평균 7.9% 증가하였다.
 - 2024년 신선 멜론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 등으로 전년(2023년) 대비 6.2% 감소한 323톤이며, 주요 수출국은 홍콩(55%)과 대만(33%)이다.
 - 2024년 신선 멜론 수입량은 전년 대비 9.0% 증가한 3,435톤이다.

그림 7-37 | 신선 멜론 수출입 동향



주: 2024년은 잠정치임.

자료: 관세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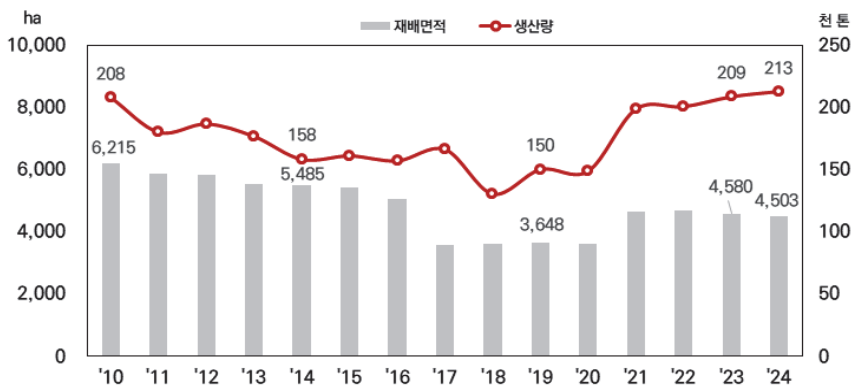
8.1. 수급 동향

8.1.1. 생산 동향

가. 재배면적 및 생산량 추이

- 참외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2.3%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2022~2024년)간 4,500ha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참외 생산량은 재배면적이 감소하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줄어드는 추세였으나, 최근 3년(2022~2024년)간 철저한 생육 관리 및 재배기술 발달 등으로 단수가 증가하면서 연평균 3.0% 증가하였다.

| 그림 7-38 | 참외 재배면적과 생산량 추이



주 1)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주 2) 2017~2020년은 통계청 표본재설정에 따른 시계열 단절 구간으로 과거 추세와 차이가 크게 나타남.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 참외 재배면적은 약 93%가량(2010~2024년 평균)이 경상북도(성주, 대구광역시, 김천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경기와 충남지역에서도 일부 재배되고 있다.
 - 경기지역은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의 대상 품목으로 참외를 지정하는 등 생산 기반 조성 사업²⁹⁾을 통해 참외 재배 농가를 지원하고 있어 최근 5년(2020~2024년)간 재배면적이 연평균 11.9% 증가하였다.

나. 2024년 생산 동향

- 2024년 참외 재배면적은 전년(2023년) 대비 1.7% 감소한 4,503ha이었다. 특히, 주산지인 경북지역의 재배면적(4,118ha)이 전년 대비 2.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참외 단수는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대비 3.7% 증가한 4,724kg/10a로 추정된다.
 - 주 출하기인 5~6월 일조량이 증가하고 병해충도 감소하면서 작과가 원활해짐에 따라 단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2024년 참외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수 증가 폭이 커 전년 대비 2.0% 증가한 21만 3천 톤으로 추정된다.

표 7-47 | 2024년 참외 생산 동향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4년	4,503	4,724	212.7
2023년	4,580	4,553	208.5
전년 대비 증감률	-1.7	3.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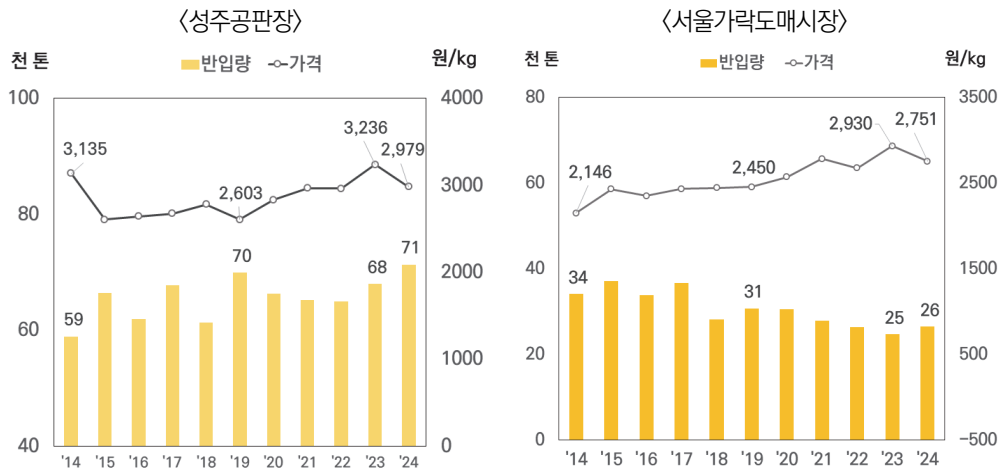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관측센터

29) 경기도는 2024년 선택형 맞춤 농정 사업으로 참외, 배, 사과, 화훼, 버 등 14개 품목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241억 원을 투입해 농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경기도청, 2024).

8.1.2. 가격 및 출하 동향

- 참외는 주로 성주공판장과 전국 도매시장으로 출하되며³⁰⁾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 도매시장과 성주공판장으로 반입된 평균 물량은 각각 6만 8천 톤, 8만5천 톤 수준이다.
 - 2024년 도매시장으로 출하된 참외의 94%가 경상북도에서 생산되었으며, 주 출하지는 성주군(73%), 칠곡군(10%) 고령군(7%) 등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2020~2024년)간 전국 도매시장으로 반입된 참외 물량 중 32%(2만 7천 톤)가 서울가락도매시장으로 출하되었으며, 이어 구리도매시장 9%(7천 6백 톤), 광주서부도매시장 7%(5천 6백 톤) 순으로 반입 비중이 높았다.
- 2024년 성주공판장 반입량은 전년(2023년) 대비 5.0% 증가한 7만 1천 톤이며, 가격은 반입량 증가로 전년 대비 7.9% 하락한 2,979원/kg이었다.

그림 7-39 | 참외 품종별 가격과 반입량 추이



주 1) 참외 주 출하기(3~9월)의 반입량 합계와 실질가격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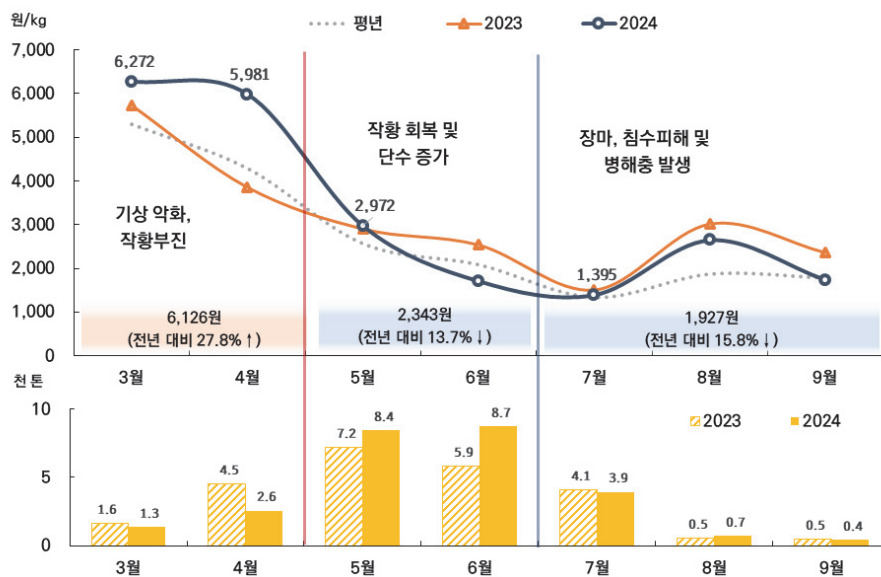
2) 가격은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자료: 성주군농업기술센터,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30) 참외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전체 생산량의 43%가 산지공판장으로 출하되고 생산자단체(57%)를 통해 도매시장으로 42%가 출하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한국농식품유통공사, 2021).

- 2024년(3~9월) 참외 반입량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2만 7천 톤으로 가격은 전년 대비 6.1% 하락한 2,751원/kg이었다³¹⁾.
 - 3~4월에는 기상 악화로 전년 및 평년 대비 반입량이 각각 36.5%, 36.7% 감소하여 도매 가격은 전년(4,642원) 및 평년(4,622원) 대비 각각 21.9%, 25.1% 상승한 6,126원/kg이었다.
 - 5~6월에는 작황이 회복되고 병·바이러스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단수가 증가하며 반입량은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1.7%, 14.8% 증가하였다. 따라서, 가격은 전년(2,511원) 대비 13.7% 하락하여 평년(2,328원) 수준인 2,343원/kg이었다.
 - 7월 중순 이후 지속된 장마로 작황이 부진하여 반입량이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5%, 22.6% 하락하였으며 침수 피해로 품질이 저하되었다. 8월 이후 작황이 회복되어 반입량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나 병해충 발생으로 품질이 저하되었다. 따라서 7~9월 가격은 전년(2,287원) 대비 15.8% 하락한 1,927원/kg이었다.

그림 7-40 | 참외 월별 가격과 반입량 추이



주 1) 가격은 가락시장 평균단가(거래금액/거래물량)이며, 생산자물가지수(2020년=100)로 실질화함.

2) 평년은 2019~2023년 중 최대, 최소를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31) 서울가락도매시장 기준으로 기술하였다.

8.1.3. 수출 동향

- 참외 수출은 2011년(62톤)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대내·외 환경 변화와 환율 변동 등의 영향으로 수출량이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 2024년 기준 참외 수출량은 309톤이며, 주요 수출국은 일본 (233톤, 76%), 홍콩 (35톤, 11%), 싱가포르 (16톤, 5%) 등이다.
- 2024년 수출량은 전년(466톤) 대비 44.8% 감소하였다. 최대 수출국인 일본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18.3% 감소한 반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전년 대비 각각 61.9%, 79.5% 감소하여 수출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홍콩 수출량 감소의 원인은 물류비 상승과 시장 내 가격 경쟁력 약화³²⁾ 등이며, 싱가포르의 참외에 대한 낮은 소비자 인지도와 제한된 유통 채널³³⁾로 감소하였다.

표 7-48 | 신선 참외 수출 동향

단위: 톤, (%)

구분	2011년	2014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62	180	436	418	327	313	466	257
일본	62	94	173	280	248	257	238	195
	(100.0)	(52.3)	(39.7)	(67.1)	(75.9)	(82.1)	(51.1)	(75.6)
홍콩	-	24	83	59	52	43	76	29
		(13.2)	(19.1)	(14.1)	(15.7)	(13.7)	(16.4)	(11.3)
싱가포르	-	58	149	49	20	4	64	13
		(32.3)	(34.2)	(11.7)	(6.0)	(1.3)	(13.8)	(5.1)
기타	-	4	31	30	8	9	87	20
		(2.2)	(7.1)	(7.1)	(2.4)	(2.9)	(18.7)	(8.0)

주 1) ()는 신선 참외 전체 수출량에서 해당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임.

2) 기타는 필리핀, 러시아, 몽골, 두바이, 말레이시아 등임.

3) 2024년은 잠정치임.

자료: 성주균청 농정과

32) 홍콩에서는 물류비 상승과 현지 소비자층의 낮은 참외 인지도로 인해 한국산 참외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참외 및 고구마 수출시장 경쟁력 분석』, 2024).

33) 싱가포르에서는 참외가 이색 과일로 분류되어 소비자 경험이 부족하고, 유통이 한인마트에 국한되어 있어 수출 확대에 제약이 있다(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참외 및 고구마 수출시장 경쟁력 분석』, 2024).

8.2. 수급 전망

8.2.1. 2025년 전망

- 2025년 참외 정식(의향)면적은 전년 대비 1.7%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4년 11월 정식면적은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출하 초기 가격이 높아 정식시기를 12월에서 11월로 앞당긴 농가가 늘어 전년(2023년) 대비 10.4%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편, 주 정식시기인 2024년 12월과 2025년 1월 정식면적은 타 작목 전환(딸기, 포도, 벼 등)과 조기 출하에 따른 수익 기대 등으로 정식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전년 대비 각각 6.9%, 16.1% 감소할 전망이다.

표 7-49 | 2025년 참외 시기별 정식(의향)면적

단위: %

구분	2024년		2025년	전체
	11월	12월	1월 이후	
비중	30.2	68.9	0.9	100.0
전년 대비 증감률	10.4	-6.9	-16.1	-1.7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 2025년 참외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작목 전환(벼, 샤인머스켓)하려는 농가 의향 증가로 전년(2024년)과 평년 대비 각각 1.7%, 3.3% 감소한 4,426ha로 전망된다.
- 2025년 단수는 전년 대비 7.6% 감소하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인 4,367kg/10a로 전망된다.
 - 2024년 주 출하기(6~9월)에 참외 단수는 일조량 증가와 병·바이러스 피해가 감소하여 전년(2023년) 대비 3.7% 증가하였으나, 기상 여건 및 인력 부족 등 재배 환경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2025년 단수는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단, 기상 요인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변동 가능성은 있다.
- 2025년 참외 생산량은 재배면적과 단수 감소로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9.1% 4.6% 감소한 19만 3천 톤으로 전망된다.

| 표 7-50 | 2025년 참외 생산 전망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25년	4,426	4,367	193	
2024년	4,503	4,724	213	
평년	4,579	4,366	203	
증감률	전년 대비	-1.7	-7.6	-9.1
	평년 대비	-3.3	0.0	-4.6

자료: 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 조사치

8.2.2. 증장기 전망

- 참외 재배면적은 2025년 4,426ha에서 2034년 3,977ha로 연평균 1.1% 감소할 전망이다.
 - 주산지인 성주군 농가 인구는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청년인구 이탈로 인해 참외 재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참외 단수는 2025년 4,367kg/10a에서 2034년 4,486kg/10a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다만, 기상 요인 등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변동 가능성은 있다.
 - 현재 참외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수경재배 기술과 스마트팜 수직재배 시스템 도입³⁴⁾이 추진되고 있으며 디지털 재배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 개발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 참외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단수의 변화 추이에 따라 2025년 19만 3천 톤에서 2034년 17만 9천 톤으로 연평균 0.7% 감소할 전망이다.
- 1인당 소비량은 생산량 감소로 2024년 4.1kg에서 2034년 3.5kg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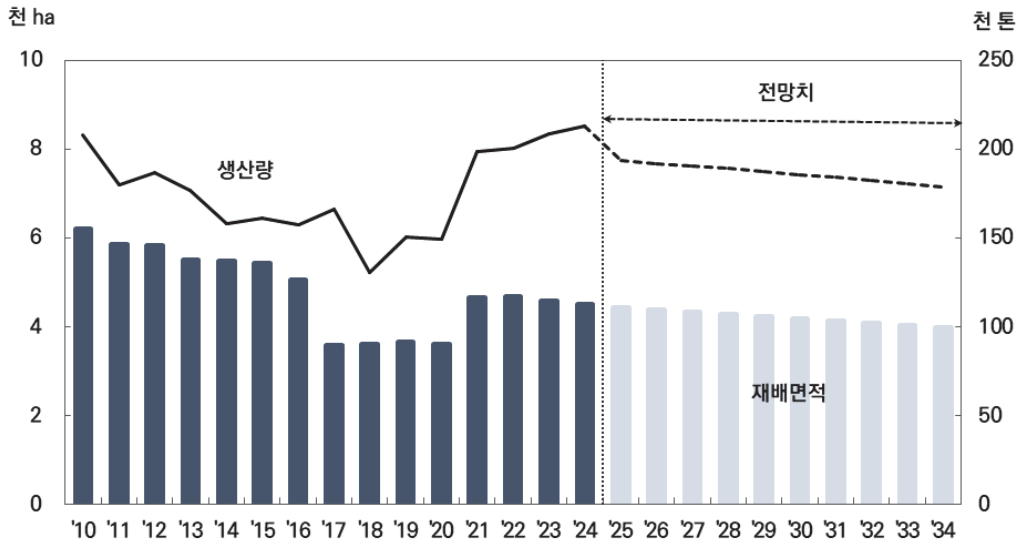
34) 경상북도는 참외 생산량을 1.7배 높일 수 있는 수경재배 시스템 특허기술을 확보 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외 재배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상북도농업기술원, 2024).

표 7-51 | 참외 중장기 수급 전망

구분		2024년	전망		
내용	단위		2025년	2029년	2034년
재배면적	ha	4,503	4,426	4,238	3,977
단수	kg/10a	4,724	4,367	4,419	4,486
생산량	천 톤	212.7	193.3	187.3	178.4
1인당 소비량	kg	4.1	3.7	3.6	3.5

주: 2024년 단수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그림 7-41 | 참외 중장기 생산 전망



주 1) 2024년 생산량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2025년 이후는 전망치임.
 2) 2017~2020년은 통계청 표본재설정에 따른 시계열 단절 구간으로 과거 추세와 차이가 크게 나타남.
 자료: 통계청, 농업관측센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SMO(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제 5 장
제 7 장
제 8 장
제 9 장
제 10 장

▮ 부표 7-1 ▮ 오이 수급 동향

구분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톤)	수입량 (톤)
2000년	7,269	6,239	453.5	5,806	8,740
2001년	6,969	6,479	451.5	8,265	10,000
2002년	6,886	6,734	463.7	3,576	14,013
2003년	6,648	6,694	445.0	2,320	14,097
2004년	6,026	6,762	407.5	1,320	17,783
2005년	5,853	6,890	403.3	951	17,662
2006년	5,841	6,669	389.6	439	20,044
2007년	4,893	6,749	330.2	414	19,592
2008년	5,630	6,819	383.9	172	18,886
2009년	4,932	7,137	352.0	184	18,140
2010년	4,396	6,965	306.2	54	20,600
2011년	4,540	6,692	303.8	45	21,396
2012년	4,167	6,913	288.1	64	21,770
2013년	3,629	7,015	254.6	144	21,096
2014년	4,143	6,737	279.1	437	23,368
2015년	4,137	6,552	271.0	234	21,034
2016년	4,781	6,981	333.8	207	21,024
2017년	4,918	6,941	341.4	311	20,123
2018년	5,323	7,350	391.2	259	20,306
2019년	4,962	7,377	366.1	228	19,968
2020년	4,721	7,109	335.6	210	19,054
2021년	4,121	6,890	283.9	206	19,089
2022년	3,836	7,349	281.9	108	19,963
2023년	4,078	7,068	288.3	143	19,356
2024년	4,154	7,053 ^e	293.0 ^e	178	20,756

주: e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이며, 2024년 수출입량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I 부표 7-2 | 호박 수급 동향

구분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톤)	수입량 (톤)
2000년	8,434	2,851	240.5	695	888
2001년	8,792	3,362	295.6	335	2,089
2002년	9,035	3,061	276.5	770	2,851
2003년	8,791	3,092	271.8	699	4,950
2004년	9,452	3,220	304.3	333	7,581
2005년	9,327	3,636	339.1	296	9,055
2006년	9,667	3,331	322.0	304	13,785
2007년	10,375	3,181	330.0	220	19,722
2008년	9,473	3,457	327.5	139	15,890
2009년	9,795	3,482	341.2	313	15,046
2010년	8,970	3,377	302.9	326	15,164
2011년	8,820	3,401	300.4	791	19,708
2012년	10,450	3,110	325.1	1,222	24,921
2013년	9,459	3,415	323.4	1,098	24,309
2014년	9,659	3,572	345.5	1,545	19,417
2015년	10,645	3,419	364.4	2,192	23,184
2016년	9,007	3,311	298.2	2,311	22,113
2017년	9,095	3,438	312.7	1,787	24,031
2018년	9,206	3,370	310.2	2,750	24,824
2019년	9,874	3,479	343.5	2,109	24,272
2020년	9,565	3,401	325.3	2,673	24,614
2021년	8,222	2,954	242.9	1,081	26,194
2022년	8,249	3,189	263.1	579	19,808
2023년	9,648	3,045	293.8	275	12,316
2024년	10,360	2,886 ^e	299.0 ^e	533	22,313

주: e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이며, 2024년 수출입량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I 부표 7-3 | 풋고추·파프리카 수급 동향

구분	풋고추			파프리카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 톤)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톤)
2000년	5,659	3,490	197.5	110	6,818	7.5	-
2001년	5,517	4,198	231.6	133	9,132	12.1	-
2002년	4,620	4,078	188.4	149	10,560	15.7	-
2003년	5,648	3,863	218.2	171	9,579	16.4	9,500
2004년	6,485	3,937	255.3	260	7,904	20.6	16,019
2005년	5,724	4,088	234.0	249	8,687	21.6	17,845
2006년	5,606	4,211	236.1	335	8,401	28.1	14,604
2007년	5,966	4,253	253.7	319	9,050	28.9	14,185
2008년	6,060	4,328	262.3	367	8,931	32.8	17,057
2009년	5,704	4,087	233.1	410	8,768	36.0	17,725
2010년	5,392	3,989	215.1	424	9,763	41.4	16,168
2011년	4,814	3,846	185.1	429	10,061	43.2	16,513
2012년	4,995	3,961	197.9	430	11,777	50.6	20,765
2013년	4,851	3,733	181.1	575	10,891	62.6	22,067
2014년	4,619	4,025	185.9	598	10,763	64.4	23,138
2015년	4,878	3,599	175.6	709	10,289	72.9	29,376
2016년	4,455	3,798	169.2	725	10,686	77.5	30,276
2017년	4,529	4,112	186.2	712	10,970	78.1	34,843
2018년	4,806	4,031	193.7	697	10,780	75.1	31,920
2019년	4,256	4,132	175.8	728	11,095	80.8	35,325
2020년	4,387	4,179	183.3	733	11,165	81.8	30,274
2021년	4,388	3,837	168.4	719	11,289	81.2	27,448
2022년	3,758	3,887	146.1	726	11,301	82.0	26,789
2023년	3,796	3,813	144.7	807	11,208	90.4	21,700
2024년	3,717	3,661 ^e	136.1 ^e	791 ^e	11,230 ^e	88.8 ^e	14,763

주: e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이며, 2024년 수출량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 부표 7-4 | 토마토 수급 동향

구분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톤)	수입량 (톤)
2000년	4,916	5,628	276.7	12,678	28,422
2001년	3,348	6,146	205.8	9,538	30,302
2002년	3,531	6,417	226.6	5,107	32,979
2003년	4,102	6,580	269.9	4,251	33,797
2004년	5,883	6,708	394.6	4,069	38,841
2005년	6,749	6,505	439.0	4,314	39,851
2006년	6,613	6,550	433.2	2,661	41,899
2007년	7,353	6,526	479.9	1,775	43,157
2008년	6,144	6,643	408.2	1,745	41,323
2009년	6,188	6,202	383.8	1,736	38,238
2010년	5,270	6,163	324.8	2,303	43,105
2011년	5,850	6,294	368.2	3,185	45,819
2012년	6,344	6,822	432.8	4,228	48,610
2013년	6,054	6,419	388.6	5,484	49,508
2014년	7,070	7,072	500.0	5,538	54,265
2015년	6,976	6,551	457.0	5,738	48,276
2016년	6,391	6,107	390.3	5,428	48,284
2017년	5,782	6,142	355.1	6,334	53,837
2018년	6,058	6,416	388.7	7,334	55,644
2019년	5,706	6,284	358.6	7,498	55,098
2020년	5,521	6,232	344.0	6,709	52,087
2021년	6,010	6,146	369.4	7,874	62,514
2022년	6,111	6,199	378.8	7,907	65,540
2023년	5,400	6,259	338.0	7,516	62,604
2024년	6,086	5,382 ^e	327.5 ^e	5,278	73,320

주: e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이며, 2024년 수출입량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I 부표 7-5I 딸기 수급 동향

구분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톤)	수입량 (톤)
2000년	7,090	2,546	180.5	3,470	2,028
2001년	7,567	2,682	203.0	4,705	1,659
2002년	7,816	2,686	209.9	2,863	2,280
2003년	7,503	2,738	205.4	1,743	2,711
2004년	7,329	2,763	202.5	1,217	4,323
2005년	6,969	2,898	202.0	957	4,585
2006년	6,813	3,013	205.3	1,039	5,580
2007년	6,665	3,049	203.2	986	7,375
2008년	6,394	3,007	192.3	1,596	7,361
2009년	6,324	3,222	203.8	2,872	4,412
2010년	7,049	3,288	231.8	3,303	6,966
2011년	5,816	2,949	171.5	2,425	9,491
2012년	6,435	2,986	192.1	2,529	10,647
2013년	6,890	3,147	216.8	3,129	9,569
2014년	6,875	3,053	209.9	3,659	8,625
2015년	6,403	3,038	194.5	3,678	8,788
2016년	5,978	3,199	191.2	4,125	9,913
2017년	5,907	3,533	208.7	5,124	10,032
2018년	6,062	3,029	183.6	4,899	10,472
2019년	6,462	3,625	234.2	5,742	9,840
2020년	5,683	2,880	163.6	4,825	8,915
2021년	6,103	2,908	177.5	4,822	10,289
2022년	5,745	2,764	158.8	4,066	13,766
2023년	5,600	2,848	159.5	5,161	13,899
2024년	5,612	2,671 ^e	149.9 ^e	5,016	18,431

주: e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이며, 2024년 수출입량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관세청

Ⅰ 부표 7-6 Ⅰ 수박·참외 수급 동향

구분	수박			참외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 톤)	재배면적 (ha)	단수 (kg/10a)	생산량 (천 톤)	수출량 (톤)
2000년	30,451	3,030	922.7	10,203	3,262	332.8	-
2001년	28,451	3,335	949.0	8,655	3,123	270.3	-
2002년	25,873	3,245	839.6	7,968	3,102	247.2	-
2003년	23,508	3,332	783.3	7,731	3,096	239.4	-
2004년	21,654	3,804	823.7	7,329	3,317	243.1	-
2005년	23,179	3,904	904.9	7,077	2,823	199.8	-
2006년	20,553	3,787	778.4	6,827	3,218	219.7	-
2007년	19,028	3,899	741.9	6,472	3,174	205.4	-
2008년	20,756	4,128	856.8	6,607	3,336	220.4	-
2009년	20,707	4,090	846.9	6,730	3,385	227.8	-
2010년	16,396	4,140	678.8	6,215	3,343	207.7	-
2011년	15,717	3,875	609.0	5,852	3,076	180.0	62
2012년	15,182	4,235	642.9	5,840	3,197	186.7	121
2013년	14,885	4,521	672.9	5,515	3,203	176.6	159
2014년	16,865	4,073	686.9	5,485	2,885	158.2	180
2015년	15,185	3,990	605.9	5,438	2,962	161.1	252
2016년	13,440	4,242	570.2	5,064	3,102	157.1	197
2017년	12,661	4,000	506.5	3,581	4,644	166.3	263
2018년	11,814	4,034	476.6	3,614	3,612	130.5	214
2019년	11,973	3,974	475.8	3,648	4,119	150.2	436
2020년	11,580	4,029	466.5	3,595	4,141	148.9	418
2021년	11,748	4,163	489.0	4,653	4,268	198.6	327
2022년	11,762	4,142	487.2	4,686	4,279	200.5	313
2023년	11,276	4,125	465.1	4,580	4,553	208.5	466
2024년	10,673	4,122 ^e	439.9 ^e	4,503	4,724 ^e	212.7 ^e	257

주: e는 농업관측센터 추정치이며, 2024년 수출량은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성주군청 농정과